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ostonkorea.com  
Clara Park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 조선 마지막 황태자, 이구 보스톤 세탁소에서 일했다

외면당했던 초기 보스톤 한인 유학생들 힘겨운 노력 보스톤 대학 보스톤코리안 디아스포라, 이민사 재조명 보스톤 대학 신학대학 다나 로버트 교수 주도로 진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이구, 서남표 카이스트 전 총장의 부친 서두수,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란 커피 광고 모델이었던 소설가 김은국.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세명을 엮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보스톤에서 유학했던 이민 선구자들이란 점이다.

이구 씨는 고종의 손자이며 영친왕 이은의 아들이다. 1950년 미국에 입국해 1953년부터 57년까지 MIT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며 보스톤에 거주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물론 동료 한국 유학생들로부터도 황태자로서의 존경을 받지 못했다. 황태자란 신분이었지만 그는 유학시절 돈을 마련키 위해 세탁소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다. 그는 한국에



마지막 황태자 이구

서도 일본에서도 심지어 미국에서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존재로 삶을 살았다.

1950년대에 미국 특히 보스톤에 유학 온 학생들의 삶도 이구의 삶처럼 순탄치 않았다. 이들은 미국사회, 특히 취업에서는 인종차별에 시달렸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자니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다. 그들이 피땀 어린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개척해 나갔지만 그들의 삶과 이민역사에 대한 조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밤 한끼가 고마웠던 유학생들은 1953년 BU의 마쉬 채플에 모여 보스톤 한인교회(Korean Church of Boston)를 만들고 바로 같은 날 보스톤 한인회(Korean Society

▶▶2면으로 계속



다나 로버트 보스톤 대학(BU) 신학 교수

## 동아시아계 하버드 졸업생 고액 연봉자 타인종의 두배

졸업생 60%가 7만불 이상, 11만불 이상도 1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하버드 졸업생 중 초봉을 7만불 이상 받는 백인 학생은 35%, 흑인학생은 32%, 히스패닉 학생은 31%인데 반해 동아시아계는 무려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크립슨이 28일 졸업하는 2015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졸업생들의 41%가 7만불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 약 8%는 당장 11만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49%가 7만불 이상, 여성은 34%가 7만불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졸업생의 71%는 취업을 택하고 15%는 대학원으로 진학하며 4%는 여행을 떠날 예정이지만 9%는 아직 미래에 대한 결정을 못한 상태였다.

컴퓨터 사이언스 쪽의 전공자는 고소득 연봉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컴퓨터 사이언스 쪽 전공자의 47%가 졸업후 11만불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인종별로 동아시아계 졸업생의 16.35%가 11만불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게 될 예정이다. 백인의 경우 5.73%, 흑인의 경우 2.56%, 그리고 히스패닉의 경우 8%의 졸업생들이 11만불 이상의 고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hbs@bostonkorea.com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할인항공권전문

From **\$1198**

보스톤-인천(왕복!) ONLY 1 Stop

6월 출발!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항공권 금액은 실제로 변동됩니다. 항공사, 여행일정, 예약상황 등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ACE TRAVEL**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1a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vlkr  
카톡상담아이디: IACEKOREA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e N.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Dir: 508.665.1544  
Fax: 508.665.1537  
june@selamilaw.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3156      Direct: 617.642.5670  
won@bostonpremierrealty.com      jason@bostonpremierrealty.com

# 보스톤 최초 한인교회부터 초기 한인회까지, 이민 역사 낱알이 발굴

▶▶1면에 이어서

of Boston)도 만들었다. 서남표 카이스트 교수의 아버지 서두수 씨는 보스톤 한인회의 1대 회장이다. 보스톤 한인교회는 현재 브루클라인으로 옮겨 보스톤 최대 교회의 하나이자 미국 본토에서 두번째로 역사가 오래된 교회로 자리하고 있다. 보스톤 한인회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날까지 한인회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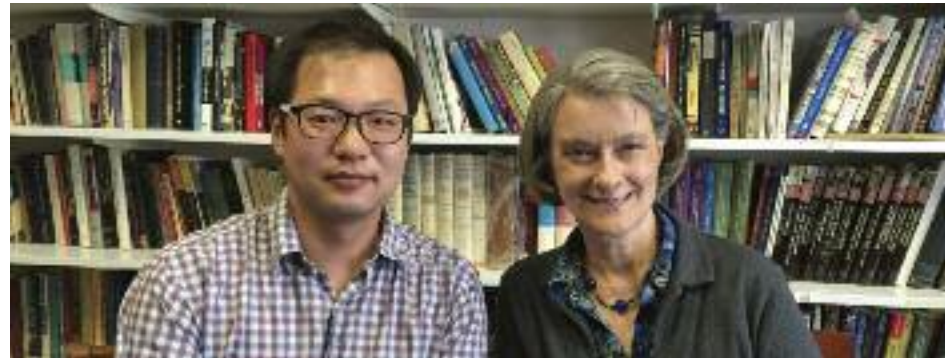
무관심과 시간 속에 묻혀있던 1950년대 유학생의 역사가 보스톤 대학(BU)의 <보스톤코리아 디아스포라 프로젝트>로 발굴되고 있다. 보스톤 이민사는 한국의 근대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점이 있었음에도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그들만의 역사로 철저히 외면 받도록 만들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보스톤 한인들조차도 이들을 상당 부분 잊거나 잊혀지도록 수수방관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간을 털어내고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기록의 조각들을 맞추어 역사 속 한인들의 유학생 활을 재생해 내고 있는 프로젝트의 중심에 다나 로버트 BU 신학대학원 교수가 있다. 로버트 교수는 아시아 또는 한국과 혈연, 지연 관계가 전혀 없다. 더구나 이민사를 조명하는 곳이 역사 학과가 아닌 신학대이다. 한인 이민사가 미국인 교수의 손에서 그것도 신학대에서부터 조명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로버트 교수는 몇 년 전 알게 된 전해성(East Rock Institute회장, 고광림 박사 부인) 박사로 부터 이 프로젝트의 영감을 받았다. 특히 “1950-60년대의 시민운동의 발단에 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아시아 특히 한인들의 이민 역사는 연구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보스톤 한인들의 역사를 복원하고 싶었다” 고 밝혔다.

로버트 교수의 동기는 한국 기독교계 유학생들로 인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교수는 “30년간 많은 한인 제자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생겼다” 고 밝혔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는 많이 회자 되지만 한인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고 느낀 것은 어쩌면



다나 로버트 교수(오른쪽) 지도하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희승 씨(왼쪽)

그리 특이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유학생들 특히 BU 관련 유학생들이 한국의 기독교 발전과 근대화 과정에서 공헌했던 점들을 개인의 이야기적 관점에서 접근해나가는 연구 방법을 택했다. 로버트 교수 자신이 마련한 자금으로 매 학기 3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을 선발해 50-60년대 한인 유학생들 중 한 명을 선정 집중 자료조사를 시작했다.

연구의 초점을 1950-60여년도에 보스톤에 온 유학생들로 집중한 이유는 이 시기를 선택한 것은 미국의 시민운동기와 상관관계는 물론 당시

유학생 이민사회에서 한국의 문화라는 개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초로 한인교회인 보스톤 한인교회를 설립하고, 한인회를 설립해 한국문화를 전파했다. 또한 이들로 인해 하버드 엔칭에 한국 책들이 구비되었고, 마침내는 상당수의 미국 교육 기관 마다 이제 한국학 연구부서가 생기기 시작했다. 대단한 변화다. 로버트 교수에 따르면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의 일로 흥미롭고 중요한

기간의 사건” 이다.

3년전인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총 9명의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이들이 다룬 인물로는 고광림 박사, 전해성박사와 가족, 헬렌 킴과 에드 하이모프, 김성하, 이구, 리차드 은국 김, 박대선, 정재식, 김대실 등 다양하다. 또한 한인 기관, 주요 사건들도 함께 다뤘다.

올해 로버트 교수의 프로젝트에 참가해 대실 김 김순 감독의 이민사를 조명한 이희승 씨(BU 신학대학원 석사과정)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을 찾고 싶다.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찾아내고 이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라며 프로젝트 전체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동기를 밝혔다.

보스톤 온지 3년 된 이희승 씨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한인들이 “한국보다 넓은 땅,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에 와서 오히려 좁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안부, 사할린의 잊혀진 한인들, LA4월 폭동 속의 한인들에 대한 다큐멘타리를 만든 김대실 감독을 만나고 인터뷰 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고 그는 덧붙였다.

자금과 학생들이 있는 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는 로버트 교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미국 시민운동 역사 등의 연구와 나란히 서게 되길 바란다. 단순히 씨앗을 뿌리는 기초 단계이지만 관심 있는 누군가가 이 연구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바램을 전했다.

한때 노벨상 후보였던 김은국. 그러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던 그의 소설 <순교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적다. 단지 그가 출연했던 기차에서 내리던 그의 모습과 광고 카피만 기억될 뿐이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로 기억되는 그.

얼마 전 타계한 <백년간의 고독>의 저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그의 책 <이야기 하기 위해 살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이 당신에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일과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이다”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서늘하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롱 펌 Iron Perm
-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김경원 한인회장 2만불 쾌척 "돈 없는 한인회 운영 안돼"

비영리단체 자격 회복 작업 들어가

30일 첫 이사회 소집  
공개 이사회로 열린다

한인회, 6~7개월 내에 비영리단체  
자격 회복 전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김경원 보스톤 한인회장이 한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만불의 기금을 쾌척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경원 회장은 “현재 한인회의 잔고는 0이다. 어느 단체라도 돈이 없으면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밝혔다.

2만불의 기금 전액을 한인회 사업을 위해 쓰겠다는 김경원 회장은 자세한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해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를 위해 김경원 회장은 한인회 전용 계좌를 새로 개설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2만불을 디포짓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렉싱턴에서 개최된 이취임식에 필요한 경비 약 1만불도 김경

원 회장이 개인 자비로 전액 지출했으며 뉴욕 태권도 나들이와 한인회 슬로건 공모전을 기획, 재정을 지원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김경원 회장은 한인회의 비영리단체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26일 기준) 지난주 담당 회계사와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치고 (비영리단체) 텍스 아이디까지 받은 상태” 라고 전했다.

김경원 회장은 “담당 회계사에 의하면 한인회가 비영리단체 재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6~7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 밝혔다.

김경원 회장 체제의 첫 이사회가 오는 30일 토요일 우편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인회 회칙 명칭 변경, 한인회 인수인계 보고, 한인회보 운영 강화 및 활성화에 대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경원 회장은 새로운 이사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오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고 신임 이사를 인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김경원 회장은 본인 체제 아래 열리는 이사회는 모두 공개 이사회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회의 투명성을 위해 무조건 공개 이사회로 할 것” 이라는 김경원 회장은 “쓴 소리도 들어야 (한인회가) 발전한다. 취재 오셔서 쓴 소리를 많이 해달라” 라는 말을 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김경원 39대 한인회장이 원활한 한인회 운영을 위해 2만불의 기금을 쾌척할 계획이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마신형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Plus

Saturday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 AM - 11:00 AM April 4 - May 30
SAT II / AP Chemistry	11:30 AM - 1:30 PM March 21 - May 30
SAT II / AP Biology	2:00 PM - 4:00 PM March 21 - May 30

## SAT Plus Summer Schedule

July 6 - July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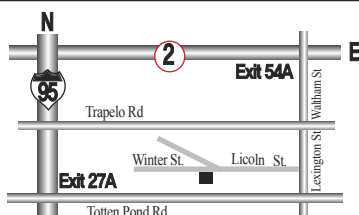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August 3 - August 21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 로드아일랜드 독도 국제 컨퍼런스 개최

“역사,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분쟁”  
한미대학교수협회,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독도 국제 컨퍼런스가 오는 6일 로드아일랜드에 위치한 옴니 프로비던스 호텔에서 개최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미대학교수협회(회장 이강원)와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독도 국제 포럼이 오는 6월 6일 토요일 로드아일랜드 소재 옴니 프로비던스 호텔(Omni Providence Hotel)에서 개최된다.

‘역사,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분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포럼에는 여러 연사와 패널이 참석해 강연을 전달하며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로드아일랜드 소재 U.S. 네이벌 워 칼리지(Naval War College)의 앤디 노리스 교수와 로저 윌리엄스 대학(Roger Williams College) 법과 교수 조나단 거토프 등의 교수진이 참석할 예정이며 보스톤에서는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가 연사로 참석한다.

이강원 한미대학교수협회 회장은 “현충일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획한 독도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의 일정은 5일 금요일 저

녁 리셉션 및 식사로 시작되며 6일에는 본격적인 컨퍼런스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이어진다. 특별히 엄성준 보스턴 총영사가 환영사를 위해 포럼에 참석한다.

행사에 관심있는 사람은 등록 양식과 함께 등록비를 내야 한다. 식사와 숙박을 포함한 등록비는 \$25이며 KAUPA 앞으로 쓴 체크를 29일까지 김종성 교수(Prof. Jongsung Kim, Department of Economics (A14) Bryant University, Smithfield Rhode Island 02917, USA)에게 보내면 된다. 기타 문의는 이강원 회장(leekw@uri.edu)에게 하면 된다.

이날 컨퍼런스는 한미대학교수협회(Korean-American University Professors Association)와 동북아역사재단(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이 공동 주최하며 로드아일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Rhode Island) 엔지니어링 칼리지가 후원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6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밤 9시(리셉션: 6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

**장소:** 옴니 프로비던스 호텔(1 West Exchange Street, Providence, RI 02903)  
dyoo9146@bostonkorea.com

## 2015 한인 미국변호사 모임 공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인 미국변호사 모임이 오는 6월 3일 수요일 캠프리지 소재 한식당 코리아나에서 개최된다.

2012년부터 시작된 한인 변호사 모임에는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날 행사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되며 식사가 6시 30분경 이어질 예정이다.

한인 미국변호사 모임에 대한 문의는 koreanlawyers.us@gmail.com으로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6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  
장소: 코리아나 레스토랑(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dyoo9146@bostonkorea.com

## 보스톤코리아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취재 전문기자를 찾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 인재를 찾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환영합니다. 작은 커뮤니티지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을 믿는 그런 기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정규 기자직 : 풀타임 0명  
취재전문 파트타임 0명  
지원 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자  
한국어 능통 및 영어 가능자  
기자 경험자 우대  
근무조건 : 셀러리 베이스, 편리한 근무시간, (필요시 비자 지원 가능)  
전형과정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지원서류 : 이력서(영문 또는 한글), 자기소개서  
관심 분야 : 250 단어(워드 기준) 내외 기사작성 본  
모집마감 : 6월 15일  
면접시 지원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수습기간 : 4개월 (수습기간은 기본 연봉의 50%)  
보수 : 추후협상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 소개서, 기사작성본을 editor@boston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 월시 보스톤 시장 "오바마 이민개혁, 변함없이 지지한다"

2심 법원, 오바마 행정명령  
또 다시 '금지'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료 워크샵  
30일 개최



(좌)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이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우) 도시 개발 프로젝트 '보스톤 2030'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복지부 수장 펠릭스 아로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이 지난 27일 수요일 시청에서 소수민족 기자회견을 통해 시행이 잠정 중단된 오바마 이민개혁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시 시장은 "안타깝게도 현재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의사를 적극 지지하며 보스톤 시는 꾸준히 무료 워크샵을 개최할 것" 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텍사스 연방지법의 일시중단 명령에 따라 잠정 중단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지난 26일 화요일 2심 법원에서 다시 한번 금지명령을 받아 중단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아닌 연방항소법원의 정식 재판에서 번복을 이끌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6일 재

판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며 내년이나 구체적인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스톤 시는 전문적인 정보가

부족한 이민자들의 추방유예 신청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무료 워크샵을 개최해오고 있다.

또 한 차례의 무료 워크샵이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스트 보스톤 소재 마리오 우마나 아카데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차이나타운, 매타펜, 이스트 보스톤 등의 지

역 도서관에서 무료 워크샵을 개최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계획 중에 있다.

월시 시장은 "특히 영어가 어려운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며 "추방유예 신청을 돕겠다는 사기 단체를 주의할 것" 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과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은 3년 동안 이민국 추방에 대한 임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임시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합법적인 취업을 가능케 한다. 혜택 수혜자들은 소셜번호를 받게 되며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인 3세로 보스톤 시장 수석보좌관을 역임하는 대니얼 고와 복지부 수장인 펠릭스 아로요가 참석해 장기 도시개발 프로젝트인 '보스톤 2030' 을 소개했다.

월시 시장이 제시한 보스톤 2030은 주거복지, 대중교통, 환경 및 문화 부문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노인 주거 시설의 확장이 기획 중에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스톤코리아를 비롯해 중국, 브라질, 포르투갈 등의 지역 언론사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안타깝게도 현재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의사를 적극 지지하며 보스톤 시는 꾸준히 무료 워크샵을 개최할 것”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 혼자 즐기기 아까운 보스톤 6월 축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각종 신나는 축제가 풍성하게 펼쳐지는 6월이 다가왔다. 지면을 통해 보스톤의 이색적이면서 즐거운 6월 축제를 소개한다. 방학을 앞둔 아이들과 함께 멋진 여름계획을 짜보는 것은 어떨까.

▶아이스크림 축제, 스쿠퍼볼

6월 2일~4일 오후 12~8시  
1 City Hall Plaza, Boston, MA 02201



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스쿠퍼볼 (Scooper Bowl)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에게 올 여름 최고의 행사가 될 듯하다. 40여가지의 다양한 맛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베스킨 라빈스, 벤앤제리, 오렌지 리프 프로즌 요거트 등의 업체가 이날 행사에 참석한다.

스쿠퍼볼 입장 티켓은 웹사이트 (scooper-bowl.org)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10세 이상은 \$10, 9세 이하 어린이는 \$5이다. 3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다.

▶이색 곤충요리, 페스토랑

6월 3일 오전 11:30~오후 2:30  
1 Faneuil Hall Square, Boston, MA 02109  
퍼네일 홀 샘 아담스 동상 앞 광장에서 이색 곤충요리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페스토랑 (Pestaurant)이 6월 3일 수요일 열린다. 시식 메뉴로는 메뚜기 터키버거 (Grasshopper Turkey Burger), 클롬 차우더 (Clorm Chowda), 밀웜 볶음밥 (Mealworm Fried Rice), 귀뚜라미를 사용한 초콜릿 칩 쿠키 (Chocolate Chirp Cookie) 등이 있다.

지난해 워싱턴 DC에서 처음 열린 페스토랑 행사에는 1만 3천여명이 몰렸으며 보스톤이 두번째 개최지로 선정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탐스필드 딸기 축제

6월 13일 오전 10시~오후 4시  
1 East Common Street, Topsfield, MA 01983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탐스필드 딸기 축제가 13일 토요일 열린다. 상큼한 딸기와 휘핑크림, 쇼트케이크를 맛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수제 약세사리, 미술품, 도자기 공예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음악 공연과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 준비되어 있다. 특별히 제1회 클래식 자동차 쇼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무료 입장이며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적합하다.

▶드래곤보트 페스티벌

6월 13~14일  
409 Memorial Drive, Cambridge, MA 02139



이색 보트 시합과 아시안 문화 축제 등의 볼거리로 매년 풍성한 드래곤보트 페스티벌이 6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열린다.

13일 토요일에는 MIT 피어스 보트하우스에서

드래곤보트 50여개 팀의 시합이 펼쳐진다. 결승전이 열리는 14일 일요일에는 정오부터 드래곤댄스, 무술 공연, 캄보디아 댄스, 일본 북춤 등 각종 신나는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캠브리지 메모리얼 드라이브를 따라 아시안 음식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빙커 힐 전투 퍼레이드

6월 14일 오후 12시 30분  
Monument Sq, Charlestown, MA 02129  
빙커 힐 전투 승리를 기념하는 240주년 퍼레이드가 14일 일요일 찰스타운에 위치한 빙커 힐 기념관에서 열린다. 제복을 갖춰입은 찰스타운 민병대의 사격시범과 화려한 파이프, 드럼 연주 퍼레이드를 장식할 예정이다. 퍼레이드 후 빙커 힐 전투 기념관과 찰스타운 네이비 야드의 USS 컨스티튜션 군함을 무료로 둘러볼 수 있다.

▶차이나타운 페스티벌

6월 27일 오전 10시~오후 5시  
Harrison Ave, Boston, MA  
보스톤의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의 연례 축제가 오는 27일 열린다. 중국 민속춤, 사자춤, 무술 공연, 경극 등의 화려한 볼거리가 실재 없이 펼쳐진다. 올해는 특별히 제1회 카라오케 경연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출출해지면 딤섬가게에서 푸짐한 식사를 즐겨보는 것도 차이나타운 축제를 만끽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듯하다.

dyoo9146@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6.25 참전유공자회 메모리얼 데이 기념행사 성황

한복, 사물놀이예  
박수갈채 쏟아져  
“한국 전통과 국위 선향하는  
기회됐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25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  
아 개최된 앤도버 타운 파크 기념행  
사에 한국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눈길  
을 끌었다.  
앤도버 소재 타운 파크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에는 현역 및  
퇴역 장병과 한국전 참전 용사를 비  
롯해 재향군인회, ROTC 등의 단체  
에서 200여명이 참석했다.

시가 행진 후 기념식이 이어졌으며  
행사가 끝난 후에는 인근 중학교에서  
참석자들을 위한 중식이 제공되기도  
했다.

한미노인회의 여성 회원들은 한복  
을 곁게 차려입고 기념식에 참석했으  
며 사물놀이 팀이 특별 공연을 펼쳐  
참석한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외에도 7.27 정전기념사업회, 한미  
노인회, 국제선교회, 민주평통 보스톤  
협의회, 북부보스톤 감리교회에서 많

은 한인들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최덕중 참전 유공자회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국전통과 국  
위를 선향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자부  
한다” 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관  
심을 갖고 지지, 협조해준 각 한인단  
체들에 참전 유공자를 대표하여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는 말을 더했다.

지난 2008년 앤도버 타운 파크에 한  
국참전 기념비가 건립되었으며 이후  
매년 메모리얼 기념 퍼레이드에 한국  
참전 용사가 특별초청되어 참석해오  
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위) 6.25 참전용사를 비롯한 보스톤의 한인들이 지난 25일 앤도버에서 개최된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아래) 메모리얼 데이 기념 퍼레이드에 참석한 민주평통 김성희 회장(왼쪽)과 이강원 재향군인회 회장(가운데), 강경선 전 참전유공자회 회장(오른쪽)



지난 22일 보스톤헤럴드 지가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부동산 업체를 조명하며 뉴스타 부동산의 백영주 보스톤 지사 대표를 소개했다

## 미국 언론, 이민자 고객 사로잡는 한인 부동산 조명

이중언어 구사하는 부동산  
이민자 고객 끌어모은다

해 자국 언어를 구사하는 부동산  
을 찾는다” 고 밝혔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  
인 기자 = 보스톤 헤럴드 지가 지  
난 22일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부  
동산이 이민자 고객을 사로잡는  
다는 기사를 보도하며 한인 부동  
산인 뉴스타 보스톤 지사를 조명  
했다.

뉴스타 부동산 보스톤 지사는  
렉싱턴과 뉴턴 지역에서 활동하  
는 업체로 총 38명의 에이전트가  
한국어와 영어, 또는 중국어와 영  
어를 구사한다.

기사에서 소개된 뉴스타 보스  
톤 지사의 백영주 대표는 “집을  
구매하는 것은 음식이나 옷을 사  
는 것과는 다르다” 며 “이민자  
고객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

해당 기사는 보스톤 거주자의  
28%를 차지하는 이민자들이 점  
점 주택을 많이 구매하는 추세라  
며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부동산  
이 구매자에게 인기가 많다고 밝  
혔다. 실제로 한국어나 중국어, 아  
랍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등을  
구사하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증  
가하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지난 23일 열린 NE 재미한국학교협회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다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신나는 한국학교 그림그리기 대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하광명군 협의회장상 수상



협의회장상을 수상한 하광명 학생(뉴잉글랜드 한국학교 4학년 고구려반)의 작품, 나이가가라 폭포 여행을 그렸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재미한국학교협회(회장 한순용)가 지난 23일 토요일 네티에 위치한 코치추에이트 공원(Cochituate Park)에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를 비롯해 우리뿌리 한국학교, 로드아일랜드 한국학교, 보스턴 장로교회 한국학교, 밀알 한국학교,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우스터 한국학교 등 8개 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참가 대상은 프리킨더부터 10~11학년까지 모두 12개 부문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학년별로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이 수여되었다. 아울러 전체

그림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해 협의회 장상을 수여기도 했다.

이날 협의회장상은 나이가가라 폭포 여행을 그린 하광명 학생(뉴잉글랜드 한국학교, 4학년)에게 돌아갔다. 하광명 학생은 자신만의 색채감과 폭포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많은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한 심사위원은 “(하광명 학생은) 4학년답지 않은 색채감을 잘 표현해냈다” 며 극찬했다.

그림그리기 행사가 끝난 후에는 각 학교별로 바베큐 파티가 열렸으며 보물찾기, 단체 줄넘기 등의 게임이 진행되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 2015년 NAKS-NE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자 명단

학년	상	이름	학교
PS	전체대상	하광명	뉴잉글랜드
	대상	김예서	뉴잉글랜드
	금상	이지아	뉴잉글랜드
	은상	김하영	뉴잉글랜드
PK	대상	김예지	뉴잉글랜드
	금상	김주현	뉴잉글랜드
	은상	이민성	보스톤 천주교
	동상	김해원	뉴잉글랜드
K	대상	유세오	북부 보스톤
	금상	정예휘	뉴잉글랜드
	은상	1. 브랜든 리차드슨	뉴잉글랜드
		2. 권단아	뉴잉글랜드
	동상	1. 김해령	뉴잉글랜드
2. 기예린		뉴잉글랜드	
1	대상	공재현	뉴잉글랜드
	금상	이예원	뉴잉글랜드
	은상	1. 정송현	우스터
		2. 하은빈	뉴잉글랜드
		3. 류하은	북부 보스톤
	동상	1. 송연	뉴잉글랜드
		2. 김다현	뉴잉글랜드
3. 권준		보스톤 천주교	
2	대상	티아	우스터
	금상	장정우	보스톤 천주교
	은상	1. 김영서	뉴잉글랜드
		2. 전윤호	우스터
		3. 이건수	밀알
	동상	1. 서예린	뉴잉글랜드
2. 김종민		뉴잉글랜드	
3. 조현빈		북부 보스톤	
3	대상	김선우	뉴잉글랜드
	금상	이수연	뉴잉글랜드
	은상	최지호	로드아일랜드
	동상	1. 에블린 리차드슨	뉴잉글랜드
2. 이혜린		뉴잉글랜드	
4	대상	하광명	뉴잉글랜드
	금상	이재서	뉴잉글랜드
	은상	1. 새라 킨즈먼	뉴잉글랜드
		2. 전해나	뉴잉글랜드
	동상	1. 김솔	뉴잉글랜드
2. 김태유		뉴잉글랜드	
5	대상	이지유	보스톤 장로교
	금상	박정원	밀알
	은상	이휘재	우스터
	동상	1. 서가은	뉴잉글랜드
2. 이유나		뉴잉글랜드	
6	대상	김하리	북부 보스톤
	금상	최정원	뉴잉글랜드
	은상	김지우	밀알
7	대상	김태연	뉴잉글랜드
	금상	박형은	뉴잉글랜드
	은상	1. 채인옥	뉴잉글랜드
		2. 윤호원	뉴잉글랜드
		3. 송수민	북부 보스톤
동상	1. 변 다니엘	뉴잉글랜드	
	2. 김모레	우스터	
	3. 김해나	뉴잉글랜드	
8, 9	대상	김예진	뉴잉글랜드
	금상	박정민	밀알
10, 11	대상	베키	우리뿌리
	금상	이민희	밀알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8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환호하고 있는 졸업생들

## 하버드 대학생 성생활 설문결과 밝혀져

올해 하버드 졸업생 중 4분의 1이 대학생활을 통틀어 순결 유지

성폭행을 경험한 여성 졸업생은 14%에 달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하버드 졸업생 중 4분의1 정도는 대학생활을 통틀어 순결을 지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크립슨이 2015년도 졸업을 맞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졸업생들은 자신들의 성생활에 대해 털어놨다.

순결을 지킨 대학생들이 있는 반면

20%에 달하는 남성 졸업생들은 10명 이상의 파트너와 성경험을 했다. 여성 졸업생들은 이보다 적은 7%만 10명 이상의 파트너와 성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하버드 크립슨의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졸업생들의 절반에 가까운 760명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비록 전체는 아니지만 샘플링을 통한 설문조사에 비해 신뢰도는 훨씬 높다.

하버드에 입학했을 때 58%는 성경험이 없었으며 42%만 성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1학년 때 무려 21%가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을 한 학생들 중 43%만이 콘돔을 사용했으며 31%어쩌다, 또는 결코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해 피임에 대한 대책없는 성행위가 일부만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45% 남학생들은 일주일에 수

차례씩 포르노영상을 본 반면 55% 여학생들은 대학생활 중 한 번도 포르노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답해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는 하버드를 포함한 미국 내 대학에서 성폭행이 만연한 것과 관련 관심을 끌고 있다. 성폭행을 경험한 여성 졸업생은 14%에 달했다.

대학 내에서는 음주가 상당히 선호되며 60%의 학생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술자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의 학생은 술과 관련된 문제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40%가 최소한 한 번 정도 마리화나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졸업생들의 20%는 자신들이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 놓았다.

hsb@bostonkorea.com



홍콩의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 제럴드 첸

## 홍콩 부동산 재벌 하버드와 도체스터에 대규모 투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홍콩의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 제럴드 첸이 하버드 스퀘어에서 부동산 1억 2천만 달러 규모를 구매한 이후 최근 도체스터의 대규모 개발부지를 구입하며 보스톤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버드 보건대학을 졸업한 제럴드 첸은 얼마전 하버드 보건 대학의 명칭을 TH 첸 보건대학으로 바꾸는 조건으로 3억 8천만불을 기부했던 장본인이다.

첸은 지난 주 세빈힐 (Savin Hill) 도체스터 애비뉴 인근 러셀 엔지니어링 사이트를 5백25만불에 구입했다. 약 2에이커에 달하는 부지는 주상복합지역으로 재개발하는데 적합한 부지다. 이 부지는 레드라인 세빈힐 역에 근접

해 있으며 현재 360가구의 주택과 상가가 들어서고 있는 닷블락 (DotBlock) 주상복합지역 바로 옆이다.

첸은 얼마전 하버드 스퀘어 건물을 구입한 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단지 렌트비를 인상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임주시켰다. 이 중 하나는 첸의 아들이 운영하는 나이트마켓이다.

첸은 모닝사이드 그룹이라는 벤처캐피탈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클린 에너지, 디지털 미디어 등에 투자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http://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보스톤 다운타운 콘도 단위 면적당 최고가 경신

만다린 오리엔탈 콘도  
판매 가격 1,250만 달러

스퀘어풋당 가격은  
3,880 달러로 역대 최고가



스퀘어풋당 가격이 4천 달러 가까이 하는 만다린 오리엔탈 콘도의 내부 모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다운타운 백베이에 위치한 만다린 오리엔탈(Mandarin Oriental) 콘도가 스퀘어풋당 역대 최고 판매 가격을 기록했다. 만다린 오리엔탈 콘도는 고층에 위치한 넓은 펜트하우스가 아님에도 높은 가격을 기록해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고급 럭셔리 콘도와 비교하면 비교적 작은 크기라 할 수 있는 침실 2개, 화장실 2.5개로 이루어진 만다린 오리엔탈 콘도의 최근 판매 가격은 1,250만 달러였다. 천만 달러가 넘는 판매 가격도 비교적 높은 가격에 속하지만, 이 콘도가 기록을 경신한 것은 스퀘어풋당 판매 가격이다. 만다린 오리엔탈 콘도의 스퀘어풋당 가격은 3,880 달러에 달한다.

다운타운에서 콘도 거래를 주로 하는 부동산 회사 오티스 앤 애헌의 케빈 애헌 사장은 이번 거래를 두고 "충격적이다"라며 "기존의 스퀘어풋당 최고 가격보다 1천 달러 가까이 비싼

가격이다"라고 말했다.

백베이 만다린 빌딩의 12층에 위치한 해당 콘도의 크기는 3,222 스퀘어 피트다. 2011년만 하더라도 이 콘도의 거래 가격은 540만 달러였다.

기존에 세워진 스퀘어풋당 최고 거래 가격은 작년에 거래된 포시즌스의 침실 4개, 화장실 3개가 있는 콘도였다. 이 콘도는 1,020만 달러에 거래되어 스퀘어풋당 2,907 달러를 기록했다.

만다린 오리엔탈 콘도와 비슷한 크기의 침실 2개, 화장실 2.5개가 있는 칼튼 하우스 콘도는 1년 전에 850만 달러, 스퀘어풋당 2,743 달러에 거래되었다. 칼튼 하우스 콘도는 퍼블릭 가든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을 갖

고 있는 콘도다.

만다린 오리엔탈 콘도의 기록적인 거래 가격은 앞으로 다가올 보스톤 럭셔리 콘도 시장을 예상할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건축 중인 61층 규모의 포시즌스타워의 펜트하우스 가격은 2천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다운타운 크로싱에 들어서는 밀레니엄 타워의 펜트하우스 가격은 3,750만 달러다.

애헌 사장은 "럭셔리 콘도 시장이 더욱 확장되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다린 오리엔탈 콘도 같은 큰 거래가) 한 번에 끝날 것 같지 않다. 럭셔리 시장에는 현금이 넘쳐난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 그린라인에도 전철 도착 예정 시간 표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MBTA 그린라인에도 전철의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설치된다. MBTA는 지난 22일, 그린라인에서는 처음으로 D라인상의 뉴튼 센터역과 뉴튼 하이랜즈역에 전철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을 선보였다.

MBTA의 임시 사장을 맡고 있는 프랭크 드파올라는 그린라인에도 전철의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승객들은 전철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고 스케줄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철역에서 다음 열차가 언제 도착할지 알려주는 전광판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이미 MBTA는 2012년부터 그린라인을 제외한 다른 전철 노선의 전철

역에서 전철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을 설치했다.

유독 그린라인에서만 다음 전철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린라인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전철역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MBTA가 작년 가을부터 그린라인 전철의 실시간 운행 정보를 공개하면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그린라인도 다음 전철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린라인의 일부 전철역에만 시간을 나타내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MBTA는 우선적으로 이런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역에서 다음 전철의 도착 시간을 알려줄 예정이다. 시계 전광판은 대부분의 그린 D라인과 지하에 있는 전철역에 설치되어 있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紅蔘

6년근

KOREAN RED GINSENG

## 하루 2번, 건강을 지키는 습관

- ✓기력회복
- ✓항암효과
- ✓감기예방
- ✓혈액순환 개선
- ✓당뇨 합병증 예방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 동인비

동인비진 크림  
DONGINBI Red Ginseng  
Power Repair Cream / Balm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SUSHI · NOODLE · GRILL

**617.547.0212**

Mixitrestaurant.com

**FREE SPICY TUNA ROLL**  
with purchase of any sushi \$30 or more

WE DELIVER lunch and dinner

Mix-it Sushi Noodle Grill | 1678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8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가이드엔맵**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엔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엔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엔맵이 곧 출시됩니다. 이 가이드 엔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하원, 어학원, 대학 등에 널리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하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관**

3만부를 채운 2월 말부터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배포되는 가이드 엔맵은 여러분의 여행을 한층 즐겁게 할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후원하는 코리안 가이드 엔맵의 배포 업무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아 관광객을 위한 것으로 풀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선택이 대한 계층은 꼭우려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엔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하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관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배포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 라이선스 없는 우버, 적발 시 \$500 벌금 부과

불법 택시 적발 건수  
3년 전 비해 2배 이상 증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우버(Uber)나 리프트(Lyft)와 같은 라이드 셰어 운전자가 택시 라이선스 없이 승객을 탑승시키다 경찰에게 적발되면 \$5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보스톤 경찰 대변인 마이클 맥카시는 보스톤 글로브 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버, 리프트 등의 라이드 셰어 서비스는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는 입장을 밝혔다.

보스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택시 적발 건수는 749건으로 2011년의 30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에는 현재까지 총 225건이 적발되어 지난해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라이드 셰어 서비스가 출범하기 전의 자료와 비교했을 때 현

저히 높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이다. 맥카시 대변인은 이와 같은 벌금 제도가 “우버나 리프트 등의 라이드 셰어 업체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며 단지 시민이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스톤 경찰이 규제할 수 있는 택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기 위함” 이라고 밝혔다.

“우버, 리프트 등의 라이드 셰어 서비스는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는 행위와 큰 차이가 없다”

라이드 셰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콜택시 서비스로 비교적 저

렴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어 소비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베이커 주 정부는 라이드 셰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구체적인 규제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라이드 셰어 업체의 활동을 허가하겠다” 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4월에는 라이드 셰어 업체에 대한 연간 세금 납부와 차량 표시, 운전자 신분 검증 및 차량 정기점검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라이드 셰어 업체의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우버와 리프트 양측은 주 정부가 요구하는 규정을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이며 운전자의 신분 검증과 보험 가입 확인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가 법안을 승인할 경우 매사추세츠 공공 시설 부서(Department of Public Utilities)는 6개월간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 월담에서 개독감 발병 확인

매사추세츠 최초 개독감 발병  
확산 우려

안 다른 방에 격리시켜 돌봤다” 고 말하고 “이번 개독감은 과거의 개독감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훨씬 강하지만 다행히 치명적이지는 않다” 고 밝혔다.

가장 뚜렷한 개독감의 증상은 사람의 플루와 마찬가지로 콧물이며 기침, 식욕감퇴, 활동감소, 그리고 완전한 병색 등이다. 개가 독감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경로는 개와 개의 접촉이다. 특히 개독감이 만연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도그파크를 방문하는 것은 금물이다.

개독감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은 수의사에게 데려가 항생제를 주사하고 물을 많이 주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데브라는 항생제를 맞히고 기침 억제제를 주었으며 잠을 많이 자도록 했다. 결국 패리스는 감기에서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첫 개독감이 아직까지 다른 개에게 전염됐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개를 기르는 집에서는 자신의 개가 같은 증상이 있는지 살피고 개독감인 경우 바로 수의사를 찾아야 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강력한 병원균의 개독감 발병 사례가 월담에서 확인되면서 개독감이 뉴잉글랜드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스톤 팩스 뉴스에 따르면 월담 거주 데브라 오버랜드 씨가 임시로 돌봐주고 있는 불독 혼종인 패리스가 개독감인 H3N2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보건 관계자들은 이 개독감 바이러스는 현존하는 플루백신으로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데브라씨는 이 불독을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이사한 친구를 대신해 돌봐주고 있는 상태다. 시카고는 현재 개독감의 진원지로 무려 1700여건의 개독감 사례가 확인된 상태다

데브라씨는 “패리스를 첫 주 동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최대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과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급도 창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ACTON

**For Sale: \$ 22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 미 남부지역 폭우 · 멕시코 토네이도 사망자 최소 28명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등 미국 남부 주(州)들과 멕시코 북부 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인해 최소 28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기상당국은 이날 새벽에 델러스 지역에서만 시간당 25mm가 넘는 비가 왔으며 홍수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날에도 텍사스 휴스턴에서 수 시간만에 25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여만에 최악의 홍수를 촉발했다.

많은 비로 홍수가 발생하자 사람들은 도로에 자동차 등을 버려두고 몸을 피했다.

애니스 파커 휴스턴시 시장은 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시민들은 안전에 유의하고 이후에도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라"고 밝혔다.

그는 응급 대원들은 시민들이 도로에 버리고 간 차량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다시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휴스턴 지역언론에 따르면 홍수가 발생하면서 정수장이 훼손되면서 약 10만갤런의 폐수가 유출됐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레이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이 26일 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와 폭풍으로 온통 물바다로 변한 가운데 범람한 도로 위에 많은 차들이 물에 잠겨있다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과 통화하고 긴급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명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텍사스 당국은 폭우가 강습한 지난 주말부터 현재까지 사망자수가 13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휴스턴에서 발생했으며 텍사스주 헤이카운티 지역에서는 11명이 실종됐다고 설명했다.

오클라호마 주에서도 최소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휴스턴, 달라스에서만 200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됐고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전봇대가 부러지면서 약 10만명이 단전 피해를 입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주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에 추가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텍사스 주와 맞닿은 멕시코 콰일라주의 시우다드 아쿠나에서는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최소 13명이 사망했다. 멕시코 연방정부는 이번에 발생한 토네이도로 247 가구가 파괴되고 45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



## 미 국세청 해킹...10만명 신상 유출 552억 허위 세금 환급도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국세청(IRS)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지난 4개월간 납세자 10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26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IRS에 따르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 집단은 올해 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그간의 거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IRS 웹사이트에 만들어진 '증명서 발급(Get Transcript)' 시스템을 통해 개인 계정에 침투했으며 납세자들의 생년월일,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을 훔쳤다.

IRS는 해커들이 "IRS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전 외부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었고 이를 통해 본인 확인 질문 등 여러 단계에 걸친 인증 절차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20만개의 계정에 침입을 시도했으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만개 계정 접근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약 1만5000건, 500

만달러(552억7500만원) 규모의 허위 세금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IRS는 보고 있다.

IRS는 다만 " '증명서 발급' 시스템은 온라인 세금 보고와는 별도의 시스템에서 운용된다"며 "세금 보고 시스템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폐쇄하고 피해자들에게 개별 통보하는 한편 무료로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코스키년 미 국세청장은 "아마 추어에 의한 소행이 아님은 확실하다"며 "이들은 우리 뿐 아니라 금융 업계 모두에게 위협한 조직적 범죄 집단"이라고 밝혔다.

코스키년 청장은 이번 해킹에 해외 해킹조직이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lchung@news1.kr

## 미 최악 AI 사태 7월께 진정 예상... 신규 감염 감소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에서 조류 독감(AI)의 신규 감염이 둔화하기 시작했으며 기온 상승에 힘

입어 7월이면 AI 유행은 중단될 것이라고 미 농무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농무부의 존 클리포드 수석수의관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 참석 한 후 로이터에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본다"며 "신규 감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클리포드 수석수의관은 OIE 총회

와 별도로 가진 자리에서 "여름 시즌이 오고 있다. 고온과 태양광선은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때문에 7월이면 기온이 올라가면서 AI 감염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AI가 미국 16개주와 캐나다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오리, 닭, 칠면

조 등 가금류 4000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최악의 AI로 미국 육계업계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공급이 달리면서 달걀 가격이 크게 올랐고 식품업계는 대체품을 구하느라 분주했다.

kirimi99@news1.kr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휴일없는 미용실**  
Bliss Image

봄날의 싱그러움을 찾아 드립니다

- 남녀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바디 마사지
- 영구화장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미용사 구함

**손영권 치과**  
Young Dentistry, PC

좋은 치과  
좋은 치아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미 법원,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유예 요청 기각...오바마 타격

### 이민개혁 최종 판단 내년 6월 대선 최대 이슈 될 듯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또 다시 제동을 걸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미 항소법원은 26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결정을 유예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루이지애나 주(州) 뉴올리언스 소재 제5순회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오바마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중지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판부는 법무부의 유예요청을 반대 찬성 1로 불허했다.

법무부는 상고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지만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상급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내년 6월까지 미뤄진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에서 이민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법체류자 470만명의 강제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26개 주의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은 오바마의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 남용이라며 텍사스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은 올해 2월 공화당 주지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법무부는 상급법원인 제5순회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마저 기각되면서 또 다시 상고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법원의 제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민 개혁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미 행정부는 불법체류 청소년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각종 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이러한 조치는 유보된 상태다.

게다가 이민 개혁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 6월 이전에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민 개혁안은 미국의 내년 대통령 선거에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좌파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를 위한 센터'에서 이민정책부문을 맡고 있는 마셜 피츠 부대표는 "내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프로그램이 발효된다면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는 극명하게 대조적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을 지지하며 더 많은 이민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을 막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kirimi99@news1.kr

# 미 법원 "클린턴 전 국무 이메일 한달에 한번 공개하라"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미국 법원은 국무부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을 한 달마다 한번씩 공개하라고 명령했다고 AFP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는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전 국무장관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법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부터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클린턴이 국무장관에 재임했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만건의 이메일로 총 5만5000페이지 분량이다.

루돌프 콘트레라스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는 6월 30일에는 전체 메일의 7%, 7월 31일에는 전체의 8%를 공개하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전체 이메일의 절반 가량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오는 2016년 1월 29일까지는 이메일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국무부는 이메일을 2달에 한번씩 공개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같은 제안은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

국무부는 이미 지난 22일 벤가치 주재 미국 영사관 피습사건과 관련한 이메일을 1차로 공개했었다. 그러나 국무부는 외교와 관련한 민감한 문제

때문에 일부 단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위 국무부 관계자는 AFP통신에 "이메일 검토 과정에 상당부분 개입해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광대한 범위 내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



미국 수학자 존 내쉬

## 게임이론 대가 미 수학자 존 내쉬 사망

### 부인 알리샤도 동반 택시 사고로 별세

하려다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과 충돌했다.

충돌로 내쉬 부부는 택시 바깥으로 튀어 나가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보인다.

택시 운전사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사고 원인을 수사 중에 있으나 기소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내쉬는 정신분열증을 앓았지만 지난 1994년 게임이론으로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의 게임이론은 수학에 기반하고 있지만 경제학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199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의 삶은 영화 '뷰티풀 마인드'를 통해 조명되기도 했다.

kirimi99@news1.kr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이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수학자 존 내쉬(86)와 그의 부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CNN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내쉬와 부인 알리샤(82)가 뉴저지에서 택시를 타고 인근 마을 먼로타운십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내쉬 부부가 타고 있던 택시는 왼쪽 차선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지나가던 차량을 피

## '구글 포토스' 출시... 무료·무제한·고품질 사진 관리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구글이 고해상도 사진을 무료로 무제한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포토스'를 28일(현지시간) 공개하고 이날 중 출시하기로 했다.

자동으로 저장되는 최대 해상도는 스틸사진은 1천600만 화소, 영상은 1080p다.

사진과 영상들은 어떤 기기에서건 자동으로 클라우드와 로컬 저장소가 연동되며, 머신 러닝을 통해 '똑똑한 사진·영상 관리'가 가능하다.

아마존이 연간 99달러를 내는 '아마존 프라이م' 회원들에게 제한된 형태로 무제한 사진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구글 포토스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는 아니다.

구글 포토스의 출시를 모든 사용자가 무료로 고품질 사진을 무제한 저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기기들과 연동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용 클라우드 분야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포토스 담당 디렉터인 아널 사브하르왈은 28일(현지시간) 오전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 서관에서 개막한 '구글 I/O 2015' 기조연설 무대에서 이를 발표했다.

그는 "사진 정리를 할 때 스크롤링, 스크롤링, 스크롤링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진을 찾기 어렵다"며 터치스크린을 핀치하는 방식의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구글의 머신 러닝으로 지능적인 사진과 영상의 보관, 저장,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28일 중으로 '구글 포토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오전 11시 30분 기준으로 해당 페이지(photos.google.com)를 이용하려고 시도하면 "새로운 기능을 개발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뜬다.

solatido@yna.co.kr

# TASTE OF KOREA

# 코리아나

##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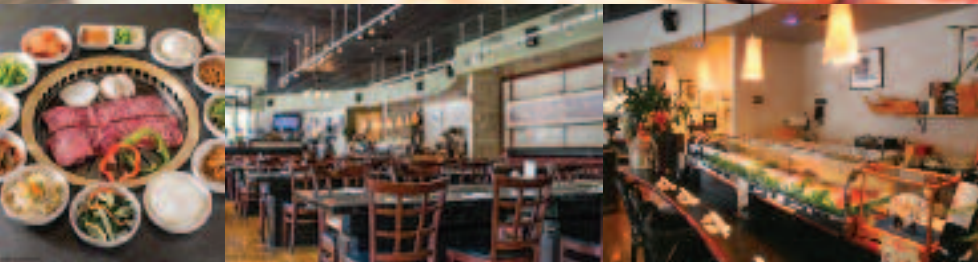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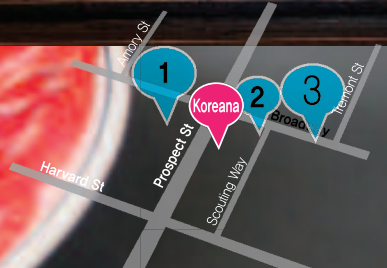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무코타  
트리트먼트**

디지털 펌  
매직 펌  
케라틴  
레귤러 펌  
하이라이트  
헤어컷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 황교안 청문특위 위원장 장윤석, 구성완료

여야 위원들 모두  
저격수나 공격수로 채워져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사 청문특위 진용이 28일 확정됐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위원장을,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았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당내 저격수나 공격수로 채워졌다.

새누리당은 28일 황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윤석 의원을, 간사에 권성동 의원을 선임했다.

위원장인 3선의 장 의원은 황 후보자와 같은 검사 출신이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당내에서 대표적인 대야(對野) 공격수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특위, 해외자원개발 비리 국정조사 특위 등의 간사에 이어 황 후보자 청문특위 간사까지 내리 맡으며 야당의 공세를 막는 '최전선'에 또 다시 나서게 됐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문특위 위원으로는 역시 검사 출신인 김제식·김희선 의원이 전진 배치됐다. 비율사 출신으로는 김종훈·김희국·염동열 의원이 들어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잘 대응하실 분들, 청문회 후 굉장히 힘든 경과보고서 채택과 인준 표결 과정을 잘하실 분들을 육사와 비율사를 적당히 섞어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황 총리 후보자한 인사청문특위 자당 몫(5명)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간사로는 재선의 우원식 의원이, 위

원으로는 김광진 박범계 은수미 홍중학 의원을 선정했다.

당내 대야(對與) 강경파로 분류되는 우 의원은 황 후보자와는 1957년 동갑내기지만,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는 등 '공안검사' 출신인 황 후보자와 대척점에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위에서 '한방'을 터트려온 김광진 의원과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물론 은수미 홍중학 의원도 당 안팎에서 '저격수'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다.

비교적 단체 몫으로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야'황교안, 증여세 탈세...철저 검증', 총공세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편법으로 탈세를 한 것이라고 28일 주장했다.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장녀에게 1억원 가량을 증여했는데 장녀는 이 돈을 신혼집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남편에게 빌려줬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황 후보자의 장녀는 이 돈에 대한 증여세 45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증여세 납부 시점이 총리로 지명되기 3일 전인 지난 18일로 총리 지명을 예상하고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새민연은 이 의혹에 덧붙여 법을 잘 아는 황 후보자가 장녀의 증여세 납부과정에서 편법으로 450만원을 탈세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법상 사위에게 1억원 가량이 증여될 경우 9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황 후보자의 재산이 사실상 사위에게 흘러들어가간 상황인만큼 납부할 증여세는 450만원

이 아니라 900만원이라는 주장이다.

말하자면 세법상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율이 제3자 증여에 비해 낮은 점을 이용해 딸에 증여한 형식을 빌어 사위에게 증여했다는 얘기다.

이종걸 새민연 원내대표는 "우리는 황 후보자가 국민에게 필요한 총리로서는 거리가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며 "황 후보자의 사사로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객관적 검증을 토대로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새민연 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장녀와 똑같이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는데 후보자는 끝까지 증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후보자 장남의 재산 자료와 출입국 기록, 교회 기부금 내역, 심지어 장남 내정을 언제 통보 받았는지 등 기초사실도 밝히지 않고 버티다 청문회를 통과했는데 이번에도 버티기로 일관해 통과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

#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MAY 29TH - JUNE 4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 PICNIC IN THE PARK

THE BEACH... BACKYARD... SIDEWALK...  
 여름과 함께하는 여름맛이 피크닉  
 SUMMER TIME

**FRI/SAT/SUN ONLY**  
 29 / 30 / 31 ONLY  
 씨없는 수박  
**SEEDLESS WATERMELON**  
 \$6.99 ea.

**아를포 망고 박스**  
**ATAULFO MANGO**  
 \$10.99 box

**돈까스용 돼지고기**  
**BONELESS PORK LOIN**  
 \$4.99 lb.

**바베큐용 생살겹살**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7.99 lb.

**폴란드 스프링 생수**  
**POLAND SPRING WATER**  
 16.9fl.oz. x 28ea./pkg.  
 \$3.99

**CROWN CORN CHIPS**  
 식물성 해농 감출 첨가  
 크라운 콘칩 5.85oz.  
 \$1.99

###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TOBAGI**

한국에서 맛보던 그맛!  
**한국산 하림 삼계탕**  
 이제 미국에서도 그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Harim**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9.99**  
 28.21oz.

Want E-Coupons in your inbox? Confirm your email address at any local HMART!

**summer savings**

각종 할인이 담긴 H마트 여름맛이 쿠폰북을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Organic goes BIG**  
 BIGGER PACKAGE MEANS MORE ORGANIC!

건강 지킴이 유기농장 곡물제품이 큰사이즈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12 lbs. PACKAGES ARE NOW AVAILABLE!**

Available ONLY at Hmart

<p><b>Organic King Oyster Mushroom</b>                  캐나다 유기농 새송이 버섯                  8oz./pkg.  <b>\$3.99</b></p>	<p><b>FRI/SAT/SUN ONLY</b>                  29 / 30 / 31 ONLY  <b>Scallion 파</b>                  3\$1 bun./for</p>	<p><b>Koimo Sweet Potato</b>                  코이모 고구마                  lb.  <b>\$1.49</b></p>	<p><b>Sliced Beef Short Plate</b>                  냉동 삼겹양지 슬라이스                  lb.  <b>\$7.99</b></p>	<p><b>Marinated Sliced Beef Rib Eye Bulgogi</b>                  양념 소불고기                  lb.  <b>\$6.99</b></p>	<p><b>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b>                  불고기용 냉동 돼지 목살                  lb.  <b>\$5.99</b></p>
<p><b>Salted Yellow Croaker</b>                  자반 참굴비                  lb.  <b>\$6.49</b></p>	<p><b>Salted Mackerel</b>                  자반 고등어                  lb.  <b>\$3.49</b></p>	<p><b>Head-On Shrimp</b>                  머리 새우                  30-40's                  lb.  <b>\$5.99</b></p>	<p><b>FRI/SAT/SUN ONLY</b>                  29 / 30 / 31 ONLY  <b>Oyster Meat</b>                  생굴                  8oz./cup  <b>\$5.99</b></p>	<p><b>TONGTONGBAY Short Neck Clam Meat</b>                  통통배 바지락살                  200-300's/1 lb. - pkg.  <b>\$2.99</b></p>	<p><b>Kyong Gi Rice</b>                  경기미에는 자연이 있습니다                  경기미                  40 lbs.  <b>\$29.99</b></p>
<p><b>SAM SU GAB SAN Brown Rice</b>                  삼수갑산 현미                  15 lbs.  <b>MON - THU ONLY</b>                  1/22/3/4 ONLY  <b>\$9.99</b></p>	<p><b>BADAAECHAN SUHYUP Premium Roasted Seaweed</b>                  수험 전장 김 선물세트                  0.7oz. x 10ea./box  <b>MON - THU ONLY</b>                  1/22/3/4 ONLY  <b>\$8.99</b></p>	<p><b>MAXIM Coffee Mix</b>                  맥심 커피 믹스                  All Varieties/                  100cnt/pkg.  <b>MON - THU ONLY</b>                  1/22/3/4 ONLY  <b>\$10.99</b></p>	<p><b>MON - THU ONLY</b>                  1/22/3/4 ONLY  <b>BINGGRAE Melona Ice Bar</b>                  빙그레 메로나 아이스크림                  2.7fl.oz. x 8ea./box  <b>\$3.99</b></p>	<p><b>NONGSHIM Shin Noodle Soup Cup</b>                  농심 신 작은 사발면                  2.64oz. x 6ea./box  <b>\$4.99</b></p>	<p><b>Seasoned vegetable bowl with rice, beef and Korean spicy sauce.</b>  <b>K TOWN Bibimbap</b>                  케이타운 즉석 비빔밥                  10.86oz.  <b>\$3.99</b></p>
<p><b>K TOWN Japchae</b>                  케이타운 즉석 잡채                  9.87oz.  <b>\$3.99</b></p>	<p><b>DANYA Soba Tsuyu</b>                  단야 소바소스                  16.7fl.oz.  <b>2\$7</b>                  ea./for</p>	<p><b>HORMEL FOODS Spam</b>                  Classic/Lite/25% Less Sodium - 12oz.  <b>2\$6</b>                  ea./for</p>	<p><b>LIFE Ice Breaker</b>                  라이프 아이스 빙수기(수동)  <b>\$11.99</b>                  ea.</p>	<p><b>Linen Bear Slippers</b>                  마소재 곰 슬리퍼                  All Colors/Pair  <b>\$2.99</b></p>	<p><b>ZOJIRUSHI Micom Elec. Rice Cooker</b>                  조지루시 마이콤 전기 밥솥                  NS-TSC18/10cups/ea.  <b>\$149.99</b></p>

# '단호한 혁신' 의지 밝힌 김상곤, '계파 패권주의 극복'에 초점

"혁신위 앞길 막는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치 않아"

당내 시선 엇갈려... 당 지도부 "협력", 비노측 "좀 더 지켜보아야"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기자 =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27일 '단호한 혁신' 의지를 천명하면서 '김상곤 혁신위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원장 인선된 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당 지도부에 사실상 '기득권 내려놓기'를 요구하는가 하면 혁신위의 활동을 거부하는 데 대한 엄단을 표명하는 등 제대로 된 혁신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 인준을 받은 뒤 인사말을 통해 "혁신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잘 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백의중군 심정으로 함께 해주실 때만이 새정치연합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

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혁신위는 오직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로 혁신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능력·무기력·무책임 정당'으로 낙인찍힌 새정치연합을 '실력·활력·책임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이를 위해 혁신위는 정당개혁·공천개혁·정치개혁의 무겁고 준엄한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강도 높은 '혁신' 의지를 표명한 것은 혁신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씻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지금저는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지금 이 절박함은 저만의 것이 아닐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혀진다.

김 위원장의 혁신은 무엇보다 '계파 패권주의 극복'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부터 혁신위의 활동 기간 중 계파와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파의 모임조차 중지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파별 접촉을 통한 의견수렴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의견수렴은 국민적 의견수렴과 당 차원의 의견수렴 등 다양하게 할 것"이라며 "그것을 꼭 계파별로, 계파에 매여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고 했다. 당초 문재인 대표가 '초계파'로 구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던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계파 안배'를 하기보단 제대로 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선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측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초계파라는 말이 계파를 뛰어넘는 것인지, 계파끼리 모여서 합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계파주의가 문제이기 때문에 혁신을 하자고 하면서 계파를 운운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혁신을 하는데 있어 계파 안배 등에 대해 시작부터 국민을 열어놓는다면 국민들께서 더 큰 비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혁신위 구성을 6월 초까지 마무리하겠다고면서 "(혁신위의) 인선·구성·조직·운영·활동기간 등이 다 혁신위에 위임돼 있다"고 독자적인 인선의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다만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 있고,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해가려고 한다"며 내·외부 인사를 조합한 인선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단호한 혁신' 의지 천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당내 비노(비노무현) 진영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은 여전히 김 위원장에 대해 미덥지 않은 기류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위해 고통스러운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저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육참골단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혁신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강단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저 역시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하게 힘을 보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고, 추미애 최고위원 역시 "이번

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분열을 타도와 계파정치의 바람을 뚫고 국민께 감동을 드리는 혁신의 항해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력하겠다"고 힘을 보탤다.

반면 비노 진영으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도 문 대표와 패권 세력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혁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노계인 호남의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오늘 언급한 것은 선언적인 의미 아니겠느냐"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 조국 "육참골단 공감 감사... '이대도강'도 필요"

"작은 것을 희생해 결정적인 승리 이끌어야" 조언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조국 서울대 교수는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해 '새정치 육참골단' (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 제안에 공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같은 맥락에서 '이대도강'(李代桃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렇게 밝힌 뒤 "즉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를 대신해 넘어져야 한다. 용감하고 헌신적인 '자두나무' 앞에 머리 숙이고 싶다"고 적었다. '이대도강'은 작은 것을 희생해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 낸다는 뜻이다.

조 교수의 언급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추천한 뒤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위해 고통스러운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저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육참골단의 각오

로 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소감이다.

조 교수는 앞서 지난 18일 새정치연합 혁신에 대한 입장으로 △계파 불문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는 자의 공천 배제 △계파 불문 4선 이상 의원 다수 용퇴 또는 적지 출마 △지역 불문 현역 의원 교체율 40% 이상 실행 △전국국민경선 실시 등을 제시했으며, 이로 인해 혁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ptj@news1.kr

## 문재인 "나부터 기득권 내려놓고 고통의 길 가겠다"

혁신위 출범 각오, "혁신위와 함께 당 단합 혁신 이룰 것"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7일 김상곤 혁신위원장 인선을 계기로 혁신위 출범의 뜻을 올린 것과 관련, "혁신위와 함께 기필코 우리 당의 단합과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작이 반"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혁신의 목적은 한 가지다. 우리 당을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 목적을 위해 우리 당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위해 고통스러운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저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육참골단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이와 함께 국민이 덕

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당원과 국민에 약속한 공천혁신, 지역분권정당 등 3대 정당혁신도 차질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강단있게 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의 길에 어떤 제약도 없다. 시간도 없고 다시 기회도 없다. 내년 총선을 위한 혁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힘줘 말했다. gayunlove@news1.kr

## 야당 대수술도 '무상급식' 처럼... 김상곤 야 혁신위원장

김상곤, 진보진영 교육계 '보편적 복지' 토대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확정된 김상곤(66) 전 경기도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로 강한 인식을 남긴 교수 출신의 진보개혁 인사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추진했던 두 가지 정책을 통해 진보진영 교육계 내에서 '혁신의 대부'로 불려 왔다.

전남 광주 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 경영학 박사를 받은 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한신대 교수였던 1986년 '6월 항쟁 교수선언'을 주도했고 이듬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하며 1995년부터 3년간 공동의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등록금후불제를 위한 교수대책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민선 1~2기 경기도 교육감을 역임하면서 일 반 국민에게 진보적인 색채를 뚜렷

하게 각인시켰다.

김 전 교육감이 민선 1기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무상급식 등 '김상곤표 교육정책'은 이후 야당이 2011년 지방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보편적 복지가 시작되는 토대가 됐다.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등을 포함해 김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핵심 교육 정책들은 이후 진보성향 교육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면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3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제안을 받고 입당해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 나섰지만 김진표 후보에게 패해 지방선거에는 나가지는 못했다.

지난해 7.20 수원을 재선거에서도 공천을 신청했지만 백혜련 변호사가 전략공천 과정에서 낙점되면서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김 전 교육감을 적극 추천한 것도 이 원내대표가 2009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맡았던 때 쌓인 친분이 계기가 됐다. ptj@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 공무원연금 6년만에 새로 태어난다...국회 본회의 의결

기여율 9% - 지급률 1.7%  
'단계적' 인상·인하

내년부터 적용...재정절감  
효과 향후 70년 333조

지급률 20년 단계적 인하는  
'한계'

(서울=뉴스1) 김유대, 유기림, 김영신, 서미선, 박소영, 이정우 기자 =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개혁 과제 가운데 첫 작품이 완성되게 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새벽 3시50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12월 이후 6년 만에 다시 단행된 개혁으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로는 4번째 대규모 개정 작업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7%인 기여율(내는 돈)을 5년 간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1.9%인

지급률(받는 돈)은 20년 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부터 처음 5년 간은 지급률이 1.9%에서 매년 0.022%포인트 내려가 1.79%가 된다. 그 후 5년 동안은 다시 1.79%에서 매년 0.01%포인트 내려 1.74%를 만들고, 그 다음 10년 간은 1.74%에서 매년 0.004% 포인트씩을 인하여 2036년이 되면 최종 지급률이 1.7%가 되도록 설계했다.

기여율 역시 7%에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내년에는 기여율을 일단 8%로 올린 뒤, 이후 4년간은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번 개혁안 적용으로 향후 70년 동안 현행 제도보다 총 333조원(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추계했다.

다만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지급률을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단기 재정 절감 효과는 손해가 불가피하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적용하면 2030년까지 총 재정부담은 현행보다 40조6858억원(17%) 감소한다.

기여율과 지급률을 즉시 조정하는 여당안의 경우 같은 기간 이보다 더 많은 63조6099억원(26%)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회기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804만원)인 소득 상한선은 1.6배(71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고, 연금액 인상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내용 역시 반영했다.

현재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2021년 61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 역시 개정안에 의해 새로 도입된다.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이 이뤄진 것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임용자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 비해 첫 달 연금 수령액이 9급은 9%, 7급은 12%, 5급은 17%로 각각 깎인다. 소득이 높은 고위직으로 갈 수록 삭감 폭도 큰 것이다.

2010년 이전 임용자에 대해선 70%를 적용하던 유족연금액은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60%를 적용기로 개정했다. 현재 유족연금수급자는 70%가 유지된다.

또한 개정안은 소득이 있을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공무원·군인·사학

에 재임용시에 연금 수급이 전액 정지되지만, 개정안은 이에 더해 선출직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자 등도 지급 정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개정안은 이혼분할 제도도 도입했다. 혼인기간 5년 이상자가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의 50% 연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연금수급요건은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기여금 납부기간은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ydkim@news1.kr

## 5월 마지막 본회의, 공무원연금법 등 67건 처리...새벽 개의 진풍경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독립 선거구획정위' 설치법도 통과

여야 협상 진통으로 임시회  
하루 연장...새벽 본회의 열어  
법안 무더기 처리

(서울=뉴스1) 박상휘, 김영신, 유기림, 서미선, 이정우, 박소영 =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59개의 법안을 포함해 총 6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탓에 소집된 이번 5월 임시회는 여야간 대치로 빈손 국회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가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극적으로 쟁점 및 현안 법안을 처리하는 데 성공

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세월호 시행령 수정 여부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가 전날(28일) 밤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날짜를 넘김에 따라 본회의가 새벽에 열리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당초 5월 임시회는 전날이 회기 마지막 날이었으나 여야의 합의가 늦어지면서, 여야는 28일 밤 회기 종료 2분을 남기고 본회의를 열어 5월 국회 회기를 29일까지 하루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법안은 역시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으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는 문제가 여야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그 여파로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5월 임시회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사회적기구 구성규칙안에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내용을 명

시하는 수준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야당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 시행령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합의로 정리했다.

쟁점 현안이 타결되자 본회의에 부의됐던 법안도 일사천리로 상정 및 통과됐다.

이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7%인 기여율(내는 돈)을 5년간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1.9%인 지급률(받는 돈)은 20년 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아 재정부담을 줄였다.

또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안전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하 공적연금강화특위 구성안)과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사회적기구 구성규칙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밖에도 이날 국회는 담뱃갑 앞·뒷면

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문구로 채워진 경고그림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으로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인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해양 사고가 나면 선장과 도선사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가중해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의결했으며,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sanghwi@news1.kr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파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가족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서울 on Beacon Hill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U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Dedicated to  
Your Health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http://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http://www.prospectdental.com)

Central Sq. Red Line  
To MIT  
To Harvard Sq.  
Mass Ave  
Starbucks  
Prospect Dental Group  
Koreana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 '막판 쟁점' 세월호 시행령 논란, 어떻게 정리됐나

'시행령 통제권 강화' 국회법 개정하되 조사과장 신분 문제는 6월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

(서울=뉴스1) 박상희 기자 = 여야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과정에서 돌발 변수로 떠올라 막판 최대 쟁점으로 작용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는 문제를 놓고 어렵사리 합의점을 도출했다. 야당은 최근 들어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근거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해 왔다.

지난 10일 합의문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시행령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당은 구체적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국 조사과장을 검찰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변경할 것 등을 요구했다. 조사과장이나 3과장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권한이 부여된 1과장에 검찰 공무원을 앉히는 것은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상규명국장이 이미 민간인이고 조사과장, 3과장이 민간인인 상황에서 1과장까지 민간인인 말을 경우 최종적인 조사의 신뢰성과 중립성 등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특히 "시행령은 정부 소

관으로, 시간을 두고 정부나 청와대 등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합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새누리당은 모법(母法)을 침해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후 개정안을 근거로 해당 상임위에서 시행령 수정 요구안을 의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즉각적인 시행령 수정 약속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거듭한 끝에 겨우 절충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되, 조사과장 직제 문제 등의 시행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설치해 추후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정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국회가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없는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일각에선 3권 분립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협상 막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합의가 늦어지기도 했다. 정부의 권한인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 요구권을 갖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야당 일각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결국 여야 원내대표 합의 초안대로 절차를 진행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야당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월호

시행령은 물론 향후에도 비슷한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진상규명국 조사과장의 신분은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한발 물러섰다. 대신 야당은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이 참여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는 세월호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사항을 점검하고, 개정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시행령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6월 임시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기산점을 사무처 구성 이후로 하고 활동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sanghwi@news1.kr

## 정청래, 최고위직 1년 정지...총선 공천자격 유지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 지역위원장직 등 '당직 자격정지'

정청래, 재심신청 할 듯... 선처 요구 주승용 "안타깝다"

주승용·문재인 제소 건은 기각...조경태 건, 계속 사실 조사

지 또는 당직자격을 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심판위원들은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1차 투표에서 '제명', '자격정지', '경고' 3가지 징계안 가운데 만장일치로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이어 자격 정지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는 2차 투표에서 6명의 위원이 '당직자격을 정지 1년'을, 3명은 '당직자격을 정지 6개월'을 선택해 최종 '당직자격을 정지 1년'으로 결정이 났다. 1차 투표에서는 '당직자격을 정지'가 7명, '당원자격을 정지'가 2명이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그동안 소명 자료를 철저히 검토를 한 후에 오늘 3차 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결정을 했다"며 "징계위원들이 모두 출석했고 그동안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토론 없이 바로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당직자격을 정지' 처분은 공천 자격에서 배제되지는 않지만 당직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과 서울 마포를 지역위원장직에서 1년 동안 물러나게 됐다. 하지만 최고위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17년 2월까지다.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내 물의를 빚은 새정치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뉴스1) 박태정, 박소영 기자 =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이 20일 3차 최종 징계 심의에서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자격은 유지하게 됐지만 최고위원과 지역위원장직위는 앞으로 1년 동안 중지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차례의 투표를 통해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당헌·당규상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은 당적 박탈이나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당원자격 정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징계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고 재심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예상보다 징계 수위가 높다는 의견에 대해 "정 최고위원의 행위로 인해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것은 맞다는 전제 하에 경고로는 약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따라 만장일치로 (자격정지로) 징계를 하게 된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광주·전북·서울지역 평당원 139명은 정 최고위원에 대

해 "최고위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으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다른 광주시역 평당원은 "박주선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정 최고위원의 SNS게시글이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제소했다. 이날 징계 심사 결과에 대해 이번 파문의 당사자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안타깝다"고만 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의 사과를 수용하고 선처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공갈 사퇴' 논란 속에 사퇴한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

구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기각됐다. 또한 4·29재보선 패배 책임을 물어 부산시당원 등이 제소한 문재인 대표 징계요구 역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 결정이 났다. 또한 '당 분열 조장'을 이유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은 구체적 사실을 계속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ptj@news1.kr

# 보스톤 **코리아** 에서 풀타임, 파트타임 취재 전문기자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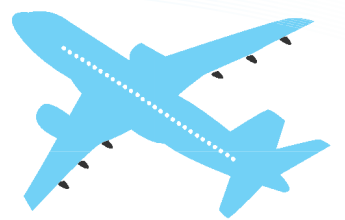
보스톤코리아에서 인재를 찾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성실한 자세를 갖고 있으면 환영합니다.  
작은 커뮤니티지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신을 믿는  
그런 기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정규 기자직 : 풀타임 0명  
취재전문 파트타임 0명  
지원 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자  
한국어 능통 및 영어 가능자  
기자 경험자 우대  
근무조건 : 샐러리 베이스, 편리한 근무시간. (필요시 비자 지원 가능)  
전형과정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지원서류: 이력서(영문 또는 한글), 자기소개서  
관심 분야: 250 단어(워드 기준) 내외 기사작성 본  
모집마감: 6월 15일  
면접시 지참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수습기간: 4개월 (수습기간은 기본 연봉의 50%)  
보수: 추후협상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 소개서, 기사작성본을 editor@boston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광학외과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 1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본검진, 백내장, 녹내장, AS(초음파) 초음파검진, 현탁액이식, 세극광 수평에 검사  
-25만원 → 20만원
- 2 4050라식라섹 / 노안 수술 레이저 노안교정  
-200만원 → 170만원
- 3 백내장 수술 (단안 일안 백내장  
교시 + 렌치 + 백내장 동시교정  
-150만원 → 110만원

**속(?) “좁은 여자가 좁은 아름다다”**

5% OFF

질 이완, 불감증, 요실금... 한번에 해결!

- 양귀비 수술 (시술시간 15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요실금 수술 (시술시간 20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이쁜이 수술 (3D리프트닝/임플란트/영플수술) 300만원
- 그 외 수술 : 음핵수술 100만원  
소음수술 200~400만원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질양형술, 정관수술, 정관박탈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전, 윤곽술, 인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절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일몰) -700만원 → 500만원	안면거상술 (목 포함) -800만원 → 600만원	매쉬 리프트 -300만원 → 300만원
상안검 -200만원 → 150만원	하안검 -200만원 → 150만원	중안면 거상 -300만원 → 200만원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Epiphany Parish & Corpus Christi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정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울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 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585  
office: 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주일 예배: 오후 2:00    금요 모임: 저녁 7:30

이 작은 삶이 많은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기쁨이 되니마 (8편 3:18)

담임목사: 우시창  
안교회: (781) 715-0571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12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턴 남부지역  
**보스턴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보스턴에는 보스턴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턴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견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턴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n@hotmail.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 스시 가맹점 안정된 창업



## 하루 주요 업무

스시바, 스시 제조 및 재고 관리  
신선한 스시를 준비하고 패키지 하기  
고객 서비스 및 고객과 소통  
데모와 샘플링 제공  
깔끔하고 잘 관리된 작업장 유지

에이스 스시는 미 전역의 주요 슈퍼마켓 200여 곳에 입점해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현재 급성장 중인 에이스 스시가 함께 성장할 사업체를 찾습니다.  
현재 우리는 보스턴 지역에 많은 체인점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매장 설립 및 투자 비용으로 사업주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착순으로 프랜차이즈를 배분하고 있으니 지금 즉시 연락 주십시오.



##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관심있는 분은 지금 바로 Amy Chuong에게 연락 주세요  
Amy.Chuong@acesushi.com 310.327.2223 ext 17

보스턴 **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 패트리어츠 치열한 주전 경쟁 시작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지난 26일, 수퍼볼 우승 이후 처음으로 팀 단위 공식 훈련을 시작했다. 패트리어츠는 앞으로 3주 동안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팀 차원의 훈련을 10회 실시한다. 패트리어츠에는 드래프트를 통해 팀에 새로 합류한 루키들, 자유 계약 신분으로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게된 선수들, 그리고 기존 선수들이 혼재해 있다. 오프시즌 동안 새로 합류한 선수들은 기존 선수들과 교류하며 새 팀에 적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주전 경쟁이다. 오프시즌 동안 NFL 팀들은 90명까지 로스터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90명의 선수 중에서 시즌 개막일에 남아 있는 선수는 53명에 불과하다. 치열한 주전 경쟁을 통해 실력을 입증하고 살아남는 선수만이 53인 로스터에 들어갈 수 있다. 패트리어츠 선수 중에도 이미 익숙한 탐 브래디, 랍 그롱코스키, 줄리언 에들먼, 랍 닌코비치, 제라드 메이요, 데빈 맥커티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은 주전으로 발탁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나머지 선수들은 3개월 뒤에도 패트리어츠 로스터에 남는다는 보장이 없다. 주요 포지션 중에서 특히 경쟁이 치열한 포지션을 살펴보자.

8명 → 5명  
빌 벨리치 감독은 러닝백을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포지션으로 보고 있다. 확실한 주전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경기 상황에 따라 러닝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까지 주전 러닝백으로 활약했던 웨인 버린과 스티븐 리들리가 자유 계약 신분으로 팀을 옮기면서 주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닝백 로스터에 있는 8명 중 주전으로 가장 유력한 선수는 르게렛 블런트와 브랜든 볼든이다. 블런트는 파워 러닝백으로 이미 검증받은 선수이고, 볼든은 스페셜 팀원으로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까지 버린이 맡았던 역할인 패스를 받는 러닝백이 누가 될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다. 패트리어츠의 공격 특성에 맞춰 러닝과 블로킹, 리시빙을 고루 할 수 있는 러닝백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Wide receiver  
10명 → 5명  
와이드 리시버에 할당된 5명의 자리 중 3명은 확실하게 채워져 있다. 줄리언 에들먼, 브랜든 라펠, 대니 아멘돌라는 이변이 없는 한 다가오는 시즌에도 주전으로 활약을 할 것이다. 나머지 2자리를 놓고 7명이 치열한



패트리어츠는 오프 시즌 훈련에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등번호가 없는 티셔츠만 입고 훈련을 한다

경쟁을 벌여야 한다. 나머지 선수 중에는 어떤 선수가 발탁되거나 탈락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주목할 선수로는 애런 답슨과 브라이언 팀스가 있다. 2013년도에 드래프트 2라운드로 뽑힌 답슨은 작년에 부상으로 거의 경기장에서 볼 수가 없었다. 답슨에게 이번 트레이닝 캠프는 남은 NFL 선수 생활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다. 팀스는 상대 팀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풋볼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다. 그러나 지난 시즌 팀스가

이런 장거리 패스를 받은 적은 딱 1번 있었다. 팀스가 살아남으려면 경기장에서 실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Linebacker  
13명 → 5명  
패트리어츠 라인배커 로스터에는 13명의 이름이 있다. 13명이나 되는 선수가 라인배커 로스터에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패트리어츠의 주전 라인배커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증거다. 하이브리드 타입의 디펜시브 엔드

선수까지 포함시키면 무려 17명의 선수가 주전 라인배커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지난 시즌 무릎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끝마쳤던 제라드 메이요가 부상에서 회복된 후 예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어깨 수술을 받은 단테 하이라워가 시즌 시작 전까지 경기장에 복귀할 수 있을지도 주전 경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jsi@bostonkorea.com

Running back

## 보스턴 한인야구리그 6라운드 경기 소식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지난 23일 열린 보스턴 한인야구리그의 6라운드 경기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뉴잉글랜드 에이스와 브루클라인 빌리버스가 연승을 이어갔다. 체스트넛힐 소재 캐시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이날 6라운드 매치는 오전의 뉴잉글랜드 에이스(New England Ace)와 매스 워리어스(Mass Warriors), 오후의 브루클라인 빌리버스(Brookline Believers)와 올스톤 슬래머스(Allston Slammers)의 경기로 구성되었다. 오전에 펼쳐진 제1경기는 지난 주에 이어 식지 않은 방망이를 휘두른 NEA가 20대 12로 승리를 거뒀다. NEA의 선발 투수 김종형 선수가 3.2이닝 동안 2실점으로 MW의 타선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였으나

이어 나온 오재룡 선수가 한 타자도 잡지 못하고 5실점을 하며 분위기가 넘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주 선발로 좋은 모습을 보인 이규연 선수가 4이닝 동안 5실점으로 넘어갈뻔 했던 분위기를 잡는데 성공했다. 이어 등판한 풀추 선수가 1.1이닝을 완벽에 가깝게 막아내며 경기를 마무리하였다. 타선에서는 1회에서 3회까지 총 17득점에 성공하며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특히 투수인 김종형 선수가 3루타 포함 3타수 3안타 4타점 1득점 1도루로 타석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MW의 타선도 3회부터 7회까지 매 회 득점에 성공하며 총 12득점을 올렸으나 초반에 벌어진 점수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하였다. (승: 이규연, 패: 황철중) 오후의 2경기에는 BB의 투수들

### 05-23-15 LEAGUE STANDING

RANK	TEAM	G	W	L	T	PCT	PTS
1	New England Ace	5	4	1	0	0.800	12
2	Brookline Believers	5	3	2	0	0.600	9
3	Allston Slammers	5	2	3	0	0.400	6
4	Massachusetts Warriors	5	2	3	0	0.400	6
5	Cambridge Bananas	4	1	3	0	0.250	3

이 AS의 타자들을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최종스코어 18대 6으로 손쉽게 승리하였다. BB의 선발 이승원 선수와 2번째 투수 이신형 선수는 단 하나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았고 이어 나온 안성우, 데이비드 황, 풀유 선수들도 5.2이닝 동안 단 5안타만을 허용하며

AS 타선을 완벽에 가깝게 막아냈다. 이날 타선에서는 야마토 마츠사카 선수가 홀로 2홈런 5타점 2득점으로 돋보이는 활약을 하며 상대팀으로부터 부정배트 의혹을 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배트임이 밝혀지면서 이날의 수훈선수로 선발되

었다. AS는 분명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빈타와 승부처에서의 집중력 부재로 인해 번번히 득점에 실패하며 큰 점수차이로 패하였다. (승: 안성우, 패: 권영대) bostonkorean@hotmail.com

HAPPY

#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mailto:Happydolsang@gmail.com)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제품**

어머님&아버님 선물로 안성맞춤

# 효도 라디오

- 숫자버튼을 이용한 초간편 사용법
- USB메모리, TF카드 (MICRO SD)에 저장된 MP3파일 직접재생
- 고성능 FM라디오
- 스마트폰, 노트북, 넷북, MP3플레이어등의 스피커로 사용가능
- 비상용랜턴 가능
- 탈착식 리튬이온 충전배터리
- LED디스플레이 (FM주파수, 음악재생시간, 곡 번호 표시)
- 이어폰단자 채용 (스테레오)
- 3W파워스피커 + 3W 하이브리드 우퍼채용
- 핸드스트랩 기본장착



- 한국 가요
- 트로트
- 성경 찬양라

**\$69**

(가요5200곡 또는 성경&찬송가 택일)

**\$79**

(가요5200곡 + 성경&찬송가)

주문 전화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마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력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49,900  
Sharon, MA  
3 Beds, 2.5 Baths, 2460 sf.  
Private Wooded Back Yard  
완벽한 집,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599,900  
Sharon, MA  
2 Beds, 3.5 Baths, 1969 sf.  
Custom Built, Water Pool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37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1352sf.  
New metal roof 2012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제니스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s, 3498sf.  
Maintained 2002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525,000  
Canton, MA  
3 beds, 2.5 baths, 1848 sf.  
Charming cape in a great  
Convenient Location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625,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420,000  
Boston, MA  
1 Bed, 1 Bath, 474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229,000  
Chelmsford, MA  
3 Beds, 2.5 Baths, 1071 sf.  
많이 업그레이드 된 타운홈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50,000  
Amherst, MA  
한국에서 오래 장사한곳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High traffic main road  
399 seat, Full Liquor License  
Sue Rong Tsai 617-792-8842

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Beauty School**  
\$135,000  
Woburn, MA  
좋은 시설, 편리한 장소  
Gina Choi 978-866-3248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Turn Key Business  
26년동안 잘 운영된 비즈니스  
Kwang O. Kim 617-792-8615

**Condo Rental**  
\$1,525  
Acton, MA  
2 Beds, 1bath, 820sf.,  
안전하고 좋은 학군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력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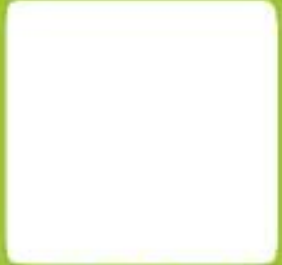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Chris Ferron  
978-905-9014

<b>Restaurant</b>  \$547,900 <b>Cambridge, MA</b>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Cleaner</b>  \$180,000 <b>Bedford, MA</b>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b>Full Plant Cleaner</b>  \$180,000 <b>Salem, MA</b>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b>Restaurant</b>  \$499,900 <b>Brookline, MA</b>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Business Consulting</b>  <b>레스토랑 셋업 컨설팅</b> SJ Park 617-304-7001	<b>Commercial</b>  <b>커머셜 건물 투자</b> S.J Park 617-304-7001	<b>비즈니스 빈자리</b>  <b>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b> S.J Park 617-304-7001	<b>병원건물</b>  \$890,000 <b>Worcester, MA</b>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b>Coin Laundry</b>  \$55,000 <b>Brookline, MA</b>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199,900 <b>Newton, MA</b>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b>Sushi Bar</b>  \$90,000 <b>Newton, MA</b>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Drycleaner</b>  \$19,000 <b>Norwood, MA</b>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b>Investment</b>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9	<b>Restaurant</b> \$120,000 Boston, MA Beer & Wine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b>Full Plant Cleaner</b>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i 617-792-8842
<b>Beauty Service</b> \$100,000 Newton, MA A turn 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b>Full Plant Cleaner</b>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3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b>APT Rental</b>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상징한 생어와 훈마구로 참치, 방어, 흰푸나, 레드스네피,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무침과 배운탕까지

**스시와 롤:**  
상징생어, 훈마구로 참치, 스크티시 셀몬, 라마제,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롤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업스론에 위치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상징하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22 May 29 2015

발행처 : The Boston Korea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다들 좋아하는 슈크림

## 비어드 파파스(Beard Papa's)

업소탐방 289

**비어드 파파스**

31 Harrison Ave Unit A, Boston, MA 02111  
facebook.com/beardpapasbos

연타비 7기 100% HD LIVE TV로 시청 가능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Welcome, **7HD**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한 한국 방송 언한 시기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유감없이 티보를 시청하세요

시니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4월 30일까지(2년 역행시)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달콤한 바닐라 또는 짭짜름한 녹차 슈크림이 주먹 크기의 바삭한 쉘 안에 듬뿍 들어있다. 너무 달지도, 느끼하지도 않은 슈크림이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비어드 파파스(Beard Papa's)는 일본 슈크림 제과점이다. 매일 갓 구워낸 쉘(Shell)과 그 속에 들어가는 슈크림 필링(Filling)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조합으로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쉘은 오리지널과 다크 초콜릿이 올라간 에클레어(Eclair), 카라멜이 들어간 돌체 데 레체(Dolce de Leche), 초콜릿 맛인 코코아가 있다.

슈크림은 오리지널 바닐라와 녹차 두 가지 맛 뿐이지만 비어드 파파스의 매니저 베이웨이에 따르면 곧 다양한 맛의 필링과 쉘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슈크림의 가격은 선택하는 쉘과 필링에 따라 \$2.75에서 \$3.60까지 다양하다.

이외에도 슈크림이 들어간 도넛인 파리 브레스트와(Paris Brest) 파리 브레스트 에클레어(Paris Brest Eclair), 미니 슈크림볼 등이 있다. 미니 슈크림볼은 다섯 개에 \$5이며 바닐라와 녹차 맛 중 한 가

지 필링을 선택할 수 있다.

비어드 파파스는 창가에 의자 네 개가 놓여 있는 작은 가게이지만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로 더욱 돋보인다. 가게 내부는 깔끔하게 흰색과 노란색으로 꾸며져 있으며 비어드 파파스의 마스코트인 귀여운 할아버지 피규어가 눈에 띈다.

또한 일본식 인사가 이색적이다. 차이나타운에 위치한만큼 가게 직원이나 매니저는 모두 중국인이지만 손님이 주문을 하거나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랏사이마세" 등의 구호를 외쳐 손님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이처럼 이색적인 인테리어와 분위기가 웬지 슈크림을 더욱 맛나게 하는 듯하다.

지난 5월 8일 성공적인 그랜드 오픈을 가진 비어드 파파스는 개점 이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바쁜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가게 밖으로 길게 줄을 서 있다는 것이 매니저 베이웨이의 말이다. 업소탐방을 위해 평일 오전에 가게를 찾았을 때에도 비어드 파파스의 슈크림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인기에 힘입어 비어드 파파스의 두 번째 지점이 올스턴 혹은 보스톤 대학(BU) 근처에 들

어설 전망이다. 베이웨이 매니저는 빠르면 올 여름으로 내다봤다.

비어드 파파스는 그린라인 보일스턴 역에서 도보로 5분, 차이나타운 역에서는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다.

dyoo9146@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에매 1PM, 담임목사 유영일

bgabc.org  
홈페이지에서 설교, 찬양 영상 영어 설교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9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8.6434  
global ark baptist church in malde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청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603-898-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탈리아도민협회	978-514-3399
한인학교협회	781-424-5269
FBI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학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둔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둔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H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산일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7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미래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턴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17-4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치 앤 앨리교회	978-274-2369
엘프리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프리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9-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턴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턴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30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창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보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은 Realtor	617-678-9330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리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태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74-2087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253-1800
스튜디오 주니	617-460-3227

### 생선가게

매터팬피시마켓	617-298-2260
매일찬피시마켓	781-862-7984
보스틴피시	617-282-2980
브룩린피시마켓	508-580-1016
스타피시마켓	617-524-8711
김스피시마켓	617-282-6142
파이시스피시마켓	617-522-2028
K씨푸드	781-961-1114

### 식당

가든하우스	978-691-5448
가주순두부(울스트)	617-208-8540
가주순두부(케임브리지)	617-864-6868
고향식당	413-586-2682
교토	401-232-3838
KIKU(한&일식)	603-882-8644
가유가	617-566-8888
뉴장수갈비	781-272-3787
다빈	781-860-0171
다오라시	508-587-3920
다이나마이트	603-889-0055
다케무라일식	617-492-6700
리틀부산	978-897-5107
마소바 (Ma Soba)	617-973-6680
만나시	781-648-8878
명동일번지	617-206-3229
미가	860-895-8739
미나도	508-647-0495
미나토 도시	617-731-5200
미소노	617-325-9919
Mr. 도시	617-731-1122
Mr. 도시 (Arlington)	781-643-4175

###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러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도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네틱(Natick)에 있는 세탁소에서 프레스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508-655-5004

프렐링햄 세탁소 6월 4일 8시부터 2시 까지 카운터 바 주실 분 (1회) T. 617-840-1833

렉싱턴소재 한,일식 식당 웨이추레스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구함. T. 781-860-0171

주방보조 풀타임 일하실 분 구함 치코피 지역 한식당 T. 413-262-3218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For Sale – Nail & Spa**

Owner retired, Well established Nail & Spa in business 15 years. 6 tables, 4 spa chairs, 3 facial/waxing room, Modern elegant decor. Steady clientele, Big cash flow. Clients list included. Asked for 85K.  
**Buyer call 781-329-2716 English or Chinese**

**For Sale  
Dry Cleaner  
Brookline Collidge Corner**

Well established customer and road based (since 1959) New "Eco-Friendly" dry cleaning machine. Asking \$299,000  
**Contact Carl T.617-577-9872**

보스톤 북쪽 지역 일식당 매매 16년 된 식당, 연매상 \$700,000 T. 978-494-2712

**하우스 매매**

웨스트우드(Westwood) 4베드룸, 3 배스, 1층 랜치.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 1.3에이커의 대지. 32Meadowbrook.com 가격 \$749,000  
**리맥스 홈팀 617-933-9778**

**N[매매]**  
올랜드 디즈니 인근 주유소 판매 디즈니 방향8차선 교차로 로컬몰 진입로에 위치, 일일통행량 8만대 이상 100% Absentee Owner로 운영중 순이익 \$10,000/월, 판매가 \$250,000 lifeisgoodfl@hotmail.com T. 863-800-0109

**N[구인]**  
용모 단정하고 성실하신 여성분 기본급+TIP(고수입보장) 단골손님 많고 오래된 Bar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오래 일하실분 T. 470-428-1010

**N[매매]**  
매사추세츠 주 스프링필드 10분거리 풀 플랜트, 30년 운영 세탁소 주인 은퇴, 매매가 \$85,000 건물 매매도 가함. 렌트 시 월 \$1,500 T. 413-271-4357

**N[매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몰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면적 1,600sf T. 931-241-0415

**N[매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공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했습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매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썬 천일염, 인디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매매]**  
메이컨조지아 근처 동양마켓겸 한식당매매 연매상 1밀리언 이상 건강상의 문제로 성업중인 한국마켓 및 안에 있는 한식당매매 현재 일하시는 분 7명 확실한 매상 수입, 전화문의 및 방문 환영 T. 615-714-8016

**N[매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N[매매]**  
샬롯, NC 일식당 매매 히바치 16 그릴 스키바 7,000 SF 단독건물 좋은 조건에 팝니다 T. 406-259-6211

**N[매매]**  
치킨링, Fish(생선) 튀김가게 렌트비 월\$1,600, 면적 1,400 SF 좋은 로케이션, 주변 식당들이 모두 잘 됨.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 웨딩빌 장비는 거의 새것임 매매가격: \$70,000 T. 910-868-4499 (11AM - 7PM 까지)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 카라, '큐피드' 활동 스타트

(서울=뉴스1스포츠) 박건욱 기자 = 그룹 카라가 신곡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카라는 27일 방송되는 MBC뮤직 '쇼챔피언'에 출연해 7번째 미니앨범 '인 러브' (In Love)의 타이틀곡 '큐피드' (CUPID)와 수록곡 '스타라이트' (Starlight) 무대를 동시에 선보인다.

이날 멤버들은 상큼하고 당돌한 매력을 동시에 담은 퍼포먼스로 음악 팬

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타이틀곡 '큐피드'는 e.one과 E.J.SHOW가 협업한 곡으로 셔플 기반의 신나는 리듬과 상대방의 마음을 저격하듯 당당하게 다가가는 여자들의 마음을 재치 있게 표현해 낸 곡이다.

한편 카라는 Mnet '엠카운트다운', KBS2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에 연이어 출연한다.

kun1112@news1.kr



## '냉장고를 부탁해' 자체 최고 시청률 돌파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냉장고를 부탁해' 시청률이 상승했다.

2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9시40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냉장고를 부탁해'는 5.3%(닐슨 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광고 제외 기준)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6.1%까지 올랐다. 기존 최고 시청률은 지난 4월 20일 방송된 23회가 기록한 4.9%이다.

이날 방송된 '냉장고를 부탁해'에는 힙합 듀오 지누선이 출연해, 그

들의 냉장고를 공개했다. 또 처음 출연한 맵기용 셰프는 이원일 셰프와 지누의 냉장고 재료로 15분 요리 대결을 펼쳤다.

요리 대결 주제는 '교포 초딩 요리'. 맵기용 셰프는 콩치 샌드위치와 김치를 넣은 '맹모닝'을 만들었고, 이원일 셰프는 떡갈비에 키조개관자, 표고를 곁들인 'LA떡다저스'를 선보였다. 두 요리를 맛본 지누는 이원일 셰프의 손을 들었다.

한편, 방송 직후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에는 맵기용의 하차를 요구하는 항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형편없는 요리가 나온 건 처음

이 아니냐", "냉장고를 부탁해에 부적합한 셰프다", "맵기용은 아직 나올만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1회부터 꾸준히 보고 있는데 혐오감을 느낀 요리는 처음"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어진 대결에서는 이연복과 김풍이 '완전 맛있는 김치 요리' 대결을 펼쳤다. 김풍은 라자나를 응용한 '이길 만두 하자나'를 만들고, 이연복은 '복꽃 엔딩'을 선보였다. 지누는 "퓨전 요리를 별로 안좋아한다"며 이연복에게 승리를 전했다.

reddgreen35@news1.kr

## 송혜교 "꽃미남 송중기, 알고보면 상남자"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 뉴스티미 = 송혜교가 '태양의 후예' 파트너 송중기에 대한 인상을 전했다.

송혜교는 최근 진행된 패션매거진 '엘르'와 진행한 화보 촬영 겸 인터뷰에서 "중기는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외모와 달리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송혜교는 이어 "기본적으로 연기도 참 잘하고 예의도 바르더라. 어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했다"고 송중기를 칭찬했다.

2일 제작사 NEW는 "배우 송중기, 송혜교, 진구, 김지원이 '태양의 후예'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태양의 후예'는 5월 26일 전역하는 송중기의 첫 작품이자, 송혜교가 '겨울, 바람이 분다' 이후 2년여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작품이 됐다.

두 사람은 각각 엘리트 코스를 밟



은 특전사 소속 해의 파병팀장 유시진과 매력적인 의사 강모연 역할을 소화한다.

특히 '태양의 후예'는 SBS '신사의 품격'과 '상속자들'을 만든 히트메이커 김은숙 작가의 신작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누가 주인공을 맡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번 드라마의 연출은 KBS 드라

마 '비밀'의 연출자 이응복 PD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양의 후예'는 낯선 땅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사랑과 성공을 꿈꾸는 젊은 군인과 의사들을 통해 삶의 가치를 담아낸 휴먼 멜로 드라마로 올 하반기 KBS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lee1220@news1.kr

## 나영석 닳아서 화난 이서진

"기분 더럽다" 버럭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나영석 닳은꼴로 이서진이 지목된 가운데 그의 반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서진은 과거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 출연해 "나영석 PD의 '페르소나'로 불리는 소감이 어떠냐"는 리포터 김태진의 질문에 "거장 감독의 '페르소나'로 불리면 기분이 좋지만 나영석 PD의 '페르소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나영석 PD와 나는 취향, 성향 모두 다 통하는 것이 없다. 다른 부분이 많지만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은 힘든 것을 함께 나누다 보니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서진은 또 "나영석 PD를 닳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질문에 "기분이 더럽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나영석 PD는 지난 26일 밤 9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로 TV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poolchoya@news1.kr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5년 5월 18일 ~ 5월 24일

##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1.7%
2	KBS2	주말연속극(파랑새의집)	21.6%
3	KBS1	KBS9시뉴스	16.6%
4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15.9%
5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3.6%
6	KBS2	일일드라마(오늘부터사랑해)	13.5%
7	KBS1	가요무대	12.7%
8	KBS2	해피선데이	12.5%
9	KBS1	인간극장	12.1%
10	KBS1	전국노래자랑	12.0%

##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일일연속극(불굴의 차여사)
2	MBC	일일드라마(딱 너 같은 딸)
3	KBS2	아침드라마(그래도 푸르른 날에)
4	SBS	일일드라마(달려라 장미)
5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6	MBC	월화드라마(화정)
7	SBS	월화드라마(풍문으로 들었소)
8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9	KBS2	수목드라마(복면검사)
10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 지켜라)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마음	아이유
02	꺼내 먹어요	Zion.T
03	LOSER	BIGBANG
04	BAE BAE	BIGBANG
05	Me You (Feat. 백예린 Of 15&)	San E
06	아예 (Ah Yeah)	EXID
07	어머님이 누구니 (Feat. 제시)	박진영
08	View	샤이니
09	다른 남자 말고 너	미쓰에이
10	연예할래	박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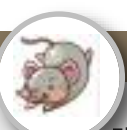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3			5	
5	1	2		9		6		
			6			9		
7		4			5		1	
8			9	6	4			5
	5		7			4		6
		5			3			
		9		7		5	4	8
	7			4				

5월 31일 - 6월 6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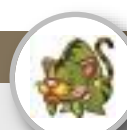
### 쥐띠 | 서서히 진행하도록

● 운수: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위기가 싫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에 맞추어야 합니다.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용 통이 잘 되지 않아서 고전할 수 있습니다. ● 애정: 마음은 있으나 적당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아 망설임이 있고, 시간을 갖고 서서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 6일 길일. 31, 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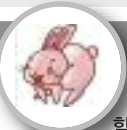
### 소띠 | 눈앞에 흘린 볼이

● 운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서 전력투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흘린 볼이 날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금전: 자금사정에 있어서 여유가 생깁니다. 차츰 승통이 트이게 됩니다. ● 애정: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회활동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임이나 행사에 많이 참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 5일 길일. 31,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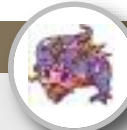
### 범띠 | 심사숙고해서

● 운수: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힘을 때릴수록 마음을 밝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금전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큰 거래는 심사숙고해서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상대를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3, 6일 길일. 1, 4일 주의.



### 토끼띠 | 열과 성을 다하도록

● 운수: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가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일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세요. ● 금전: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세요. ● 애정: 아무 것도 아닌 일도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트집을 잡더라도 맞서서 상대하지 마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31, 4일 길일. 2, 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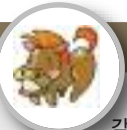
### 용띠 | 최선을 다해서

● 운수: 이것저것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검토하고 추진하세요. ● 금전: 금전적인 목표가 무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 애정: 서두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진실한 모습에 상대도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줄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 5일 길일. 3, 6일 주의.



### 뱀띠 | 귀담아 들어주어야

● 운수: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어야 합니다. 언행에 조심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일로도 구설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금전: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일에 힘을 쏟다 보면 본업에 소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애정: 상대에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면 그때그때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오해가 생기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 6일 길일. 31, 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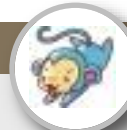
### 말띠 |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 운수: 소신껏 자신의 생각대로 뜻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때가 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더 큰 세계로 나가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준비와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 애정: 주위에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상대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31, 3일 길일. 2, 5일 주의.



### 양띠 | 크고 넓게 생각해야

● 운수: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야만 가까운 미래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가까운 곳에서 찾지 말고 크고 넓게 생각하세요. 먼 곳에 귀인이 있으니 활동범위를 넓히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애정: 다소 서먹했던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상대에 대한 생각의 변화로 전보다 더욱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 4일 길일. 3, 6일 주의.



### 원숭이띠 |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 운수: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신의 피로가 쌓이기 쉬운 때입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그로 인해 소화가장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금전: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서로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권태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화로써 해결점을 찾도록 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2, 5일 길일. 4일 주의.



### 닭띠 | 좋은 인연을 얻는

● 운수: 공평 없었던 손도 마주 잡으면 금방 운기가 돌고 따듯해지는 법입니다. 주위사람들에게 협조하는 자세로 나가면 좋은 인연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희망이 보이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들어오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 애정: 서로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애정이 점점 가열화 되면서 교제가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 6일 길일. 3, 5일 주의.



### 개띠 |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 운수: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조금씩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나타나든지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의를 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 애정: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 보세요. 주위에서만 맴돌다가는 좋은 배필을 놓칠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 3일 길일. 31, 6일 주의.



### 돼지띠 |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니

● 운수: 현 상태가 다소 힘들다고 해서 마음마저 약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는 것이니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 금전: 이익과 계산이 너무 앞서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 애정: 이성간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침착하게 판단하여 원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31, 6일 길일. 1, 4일 주의.

#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대상 나영석

"삼시세끼 덕분에 받은 상"

(서울=뉴스1) 온라인팀 = 백상예술대상 나영석 PD가 대상을 수상했다.

나영석 PD는 26일 밤 9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N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로 TV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나영석 PD는 "너무 감사하다. 뜬금없는 상을 주셨다. '삼시세끼' 덕분에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난 추운 겨울 만재도에서 고생한 제작진과 차승원, 유해진, 손호준에게 감사하다"며 수상의 영광을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돌렸다.

'백상예술대상'은 TV와 영화 부문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한 시상식으로, 무대와 영상예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65년 처음 시작



됐으며 올해는 방송인 신동엽, 배우 김아중, 주원이 MC를 맡았다. 누리꾼들은 "백상예술대상 대상 나영석, 축하한다", "백상예술대상 대상 나영석, 삼시세끼 덕이네", "백상예술대상 대상 나영석, 대박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reddgreen35@news1.kr



#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대상 최민식

"명량은 뜻깊은 영화"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백상예술대상' 대상 최민식이 소감을 밝혔다.

배우 최민식은 지난 26일 밤 9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5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명량'으로 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그는 "쑥스럽다. 보는 사람에게 따라서 호불호가 갈렸지만 '명량'이라는 작품은 뜻깊은 영화였다. 너무나 부족한 좌절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 '정말 많이 공부해야겠다'고 느꼈다"

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언젠가부터 영화의 작품성보다 흥행을 먼저 염두에 두는 나를 발견하기도 했다.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그 여백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서 지켜보겠다"며 "더 좋은 작품으로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백상예술대상 대상 최민식 앞으로 더 기대된다", "백상예술대상 대상 최민식 받을 만하네", "백상예술대상 대상 최민식 축하합니다", "백상예술대상 대상 최민식 멋지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lee1220@news1.kr

# 유승준 방송사고, 눈물 참회 후 욕설 "씨XX"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유승준 방송사고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유승준은 27일 오전 10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를 통해 두 번째 심경 고백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첫 번째 방송 이후 불거진 여러 논란들에 대해 해명하며 눈물을 보였다.

유승준은 "한국에 돌아갈 방법을 계속 찾을 거냐"는 질문에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방송이 끝난 후 발생했다. 화면이 꺼진 후 마이크 끄는 것

을 잊은 듯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오디오를 통해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지금 기사 계속 올라온다", "아 씨X", "XX새끼" 등 다양한 욕설이 전파를 타고,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스테프가 "야 이거 안 꺼졌잖아. 마이크 안 꺼졌네"라며 오디오를 켰다.

누리꾼들은 "유승준 방송사고, 큰 일이네", "유승준 방송사고, 무슨 일이냐", "유승준 방송사고 놀랐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reddgreen35@news1.kr



# 김성주 "MBC 복직하는 게 좋은 듯"

'라디오스타' 김구라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라디오스타' 김구라가 김성주의 연이은 프로그램 성공을 시애틀했다.

27일 밤 11시15분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복면가왕' 특집으로 꾸며졌다.

김성주는 "'복면가왕'은 처음에 3%에서 시작했다. 지금은 두 배가 넘는다. 또 '아빠 어디가'도 3%에서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제가 시작할 때 그랬는데"라며 "제가 끼어서 프로그램이

잘 된다"고 자랑했다.

이에 김구라는 "'아빠 어디가'는 애들이 잘하니까 잘된거다. 오디션 프로그램도 그렇지 않냐"며 "김성주는 MBC 복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reddgreen35@news1.kr



##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i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 TBO PLAY RATINGS

##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불굴의 차여사' 중년 여성의 삶 그리기 '시청자 공감'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불굴의 차여사'가 중반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가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방송 중인 MBC 일일드라마 '불굴의 차여사'(극본 박민정/연출 오현창, 장준호)는 착한 맘머느리가 철없는 효자 남편, 고집 센 시아버지, 그리고 그가 죽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청춘 남녀들의 이야기가 아닌 현 시대 어머니인 차여사(김보연 분)의 삶을 전반에 내세워 중년 여성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 차여사는 오직 자식농사 잘 짓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다.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키우고

난 후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는 'No more aunt'(더 이상 아줌마가 아닌 우아한 중년 여성)를 꿈꾸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전형적인 아줌마다.

차여사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 공주처럼 살았지만 철없는 남편 달수(오광록 분)에게 시집와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았다. 인생 한 방을 꿈꾸며 호시탐탐 사업 기회만 노리는 남편은 급기야 딸 은지(이가령 분)의 결혼 준비를 위해 빌린 돈을 냅다 사업에 투자해버린 탓에 차여사의 눈물꽃물을 쏟

빠졌다. 파란만장 스토리를 이끄는 1



등 공신 차여사 역의 배우 김보연은 기존 단아하고 기품 있는 이미지에서 주변에 있을법한 수더분한 어머니로 변신에 성공했다. 그는 진한 메이크업을 배제

하고 살을 찌웠으며 험렁하고 무난한 옷을 입는 등 꾸밈없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ppbn@news1.kr

#### 티보플레이 5월 3째주 시청률 BEST 10

- |    |     |            |
|----|-----|------------|
| 1  | MBC | 불굴의 차여사    |
| 2  | MBC | 딱 너 같은 딸   |
| 3  | KBS | 그래도 푸르른 날에 |
| 4  | SBS | 달려라 장미     |
| 5  | MBC | 여자를 울려     |
| 6  | MBC | 화정         |
| 7  | SBS | 풍문으로 들었소   |
| 8  | KBS | 슈퍼맨이 돌아왔다  |
| 9  | KBS | 복면검사       |
| 10 | KBS | 가족을 지켜라    |

#### 티보플레이 5월 3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KBS    | 복면검사             |
| 2 | CJ E&M | 집밥 백선생           |
| 3 | CJ E&M | 오늘 뭐 먹지          |
| 4 | KBS    | 몽크의 절규 그 소리없는 외침 |
| 5 | KBS    | 릭 스타인의 독일 요리 여행  |

#### 티보플레이 5월 3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아빠를 빌려 드립니다 | 김상경/문정희 |
| 2 | 끝까지 간다      | 이선균/조진웅 |

### '끝까지 간다' 감독·배우의 자신감 "한국영화서 못본 장르일 것"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끝까지 간다' 감독과 배우가 관람 요소를 밝혔다.

오는 29일 개봉되는 영화 '끝까지 간다'는 한 순간 실수로 절체절명 위기에 처한 형사 고건수(이선균)가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은폐하기 시작하며 벌어지는 예측불허 이야기를 그린 범죄 액션 영화다.

직접 각본과 감독을 맡은 김성훈 감독은 "한 남자가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다 재앙에 가까운 고통을 겪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다. 숨겨야 하는 남자와 그것을 반대로 찾아야 하는 남자가 필연적으로 맞서게 되는 이야기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릴과 서스펜스, 액션과 유머의 쾌감이 녹아있는 서프라이즈 연속인 영화로 만들고자 했다. 영화적 재미 그 자체만

으로도 매력적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저함 없이 예측불허 영화이기를 바랐다"며 연출 의도를 밝혔다.

형사 고건수 역을 맡은 이선균은 "기존 한국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장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숨 가쁘게 달리는 숨참과 살아야겠다는 절박함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악과 강으로 승부하는 형사 고건수와 자신만의 방식대로 위협을 가하는 의문의 목격자 박창민의 팽팽한 긴장 구도는 또 다른 관람 포인트다. 한번 물은 미끼는 절대 놓치지 않는 정체불명 목격자 박창민 역을 맡은 조진웅은 "스피드 있고 각 캐릭터들 부딪힘이 관객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준다. 최고의 스태프들과 고군분투하면서 만들었다"며 차별화된 악역 캐릭터를 예고했다.

ppbn@news1.kr



# TBO PLAY

보스톤 권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 TBO Play 스페셜 이벤트

**\$9<sup>.99</sup>**  
(첫 3개월)

대상: TBO Play 신규 가입자  
내용: 첫 3개월 \$9.99 이후 \$34.99 (정상가: \$39.99)

#### 이동 고객 우대 스페셜

**\$29<sup>.99</sup>**

대상: 타사 케이블 고객중 이동을 원하시는 분  
내용: 1년 이상 가입시 월 \$29.99 (정상가: \$39.99)

#### 친구(신규 가입자) 소개

**한달 무료시청**

대상: TBO Play 가입자 중 소개자  
내용: 소개 받으신 분이 첫 페이먼트를 한 이후 그 다음달에 소개자에게 한달 크레딧 적용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 레지덴셜 리스팅

- 1. 브루클라인 멀티 패밀리:** Rt 9 Brookline. Chestnut Hill Mall 인근에 위치. 총4,271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3 Mil
- 2. Colonial Single Family:** Newton Chestnut Hill에 위치. 1994년에 완공.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총면적 5,000sqft 이상, finished basement면적 포함. Asking \$1.95 Mil
- 3. Belmont 멀티 패밀리 Duplex:** Belmont High School에서 근접한 거리, 편리한 교통. 3,000sqft. 총6Bed, 2Full and 2half baths. Asking \$750,000
- 4. Watertown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편리한 교통. 2Beds 2Full baths. 1914 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450,000.
- 5. Lexington Single Family:** 1,500sqft. 4Beds 1Full Bath.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sking \$595,000

### 비즈니스 리스팅

- 1. Brookline 한식/일식:** 총면적 3,300sqft. 많은 유동인구.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350,000
- 2. Cambridge 한식/일식:** 총 면적 1,200sqft.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200,000
- 3. Peabody 중식:** 단독건물. 50+ Parking. Asking \$250,000. Full Liquor.
- 4. Nashua 인근 일식/한식:** NH 단독건물 주차공간 포함. Asking \$175,000. Full Liquor.
- 5. 드롭오프 스토어:** 1,200sqft. 넓은 주차공간, Lots of vehicular traffic. Asking \$35,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800sqft. Asking \$30,000
- 7. 세탁소+드롭오프 스토어:** 최상의 위치. Asking \$1.85 Million. 세탁소 건물 포함.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 신영의 세상 스케치

500회

## 휴내를 맡으며...

옛것은 우리 집 뒤뜰의 작은 텃밭에서 긴 겨울을 잘 견뎌내고 자란 부추를 뜯어 부침을 맛있게 만들어 먹었다. 작은 텃밭에 앉아 옷 자란 잡초를 몇 골라 뜯어내며 내심 부추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것은 뭐 특별히 해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땅 주인이라는 것밖에는 그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당당하게 해마다 맛있게 뜯어 먹곤 하는 것이다. 그 어떤 음식보다도 채소를 좋아하는 나는 부추가 오르면 기다렸다가 부추를 뜯어 쌈장에 맛나게 먹던가 아니면 샐러드의 다른 야채들과 섞어 먹기도 하는데 그 어떤 맛보다 부추 특유의 향이 참 좋다.

처음 부추가 우리 집 텃밭에 심기어진 얘기를 하자면 이렇다. 어릴 적 친구가 곁에 산다. 한 7여년 전 친구가 살던 집에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친구가 살던 집에는 뒤뜰에 텃밭이 있어 상추와 고추 부추가 있어 가끔 얻어먹곤 했었다. 그런데 새로 이사를 하게 된 큰 집에는 텃밭이 없었던 이유로 텃밭에 심기어진 부추가 못내 아쉬웠던 모양이다. 그것은 그럴 것이 미국 사람이 와서 산들 부추를 먹을 것도 아닌 이유도 있었지만

, 그것보다는 그 부추를 처음 옮겨 심어주시는 분이 친구의 시어머님이셨기에 그냥 놔두고 오기 너무 아까운 까닭이었다.

그래서 친구가 이사하기 며칠 전에 친구 집에 있던 부추 뿌리를 우리 집 텃밭으로 옮겨다 심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이듬해 봄에 부추의 파란 새싹이 오르더니 해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더니 더 많이 싹을 늘려주고 있다. 참으로 고맙기 그지없다. 특별히 텃밭의 부추를 위해 해준 것도 없이 이맘때가 되면 식탁이 푸르름으로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올해는 더욱이 긴 혹한의 겨울을 견뎌내고 오른 첫 부추를 뜯으면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 첫 부추로 부침 가루를 넣고 부침을 해먹었다.

무엇보다도 휴내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더욱 고마운 마음이었다. 부추를 뜯으러 텃밭에 가서 앉으면 여기저기 오른 잡초를 하나둘 뽑게 되고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으면 휴내가 콧속을 뚫고 들어가 온 마음과 몸과 정신에 퍼져 흐른다.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 어디에서도 쉬이 만날 수도 없

고 나눌 수도 없는 귀한 친구이다. 우리 집 뒤뜰에는 큰 나무들이 몇 있는데 가끔 텃밭을 가게 되면 그 큰 나무들을 가슴으로 안고 한참을 함께 호흡하며 내 얘기를 들려주고 오는 것이다. 그러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온몸과 마음으로 퍼져 흐르는 것이다.

며칠 전 한국의 친한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도시에서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주말에 '주말농장'에 가게 되었다고 말이다. 그 친구가 기뻐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좋던지 나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주말에 시골 '주말농장'을 찾아 밭을 일구어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들어 고구마를 심고 옥수수 씨앗을 심는다는 말에 나도 함께 가서 일하고 온 것처럼 즐겁고 행복했다. 친구는 더운 날씨에 주말 농장을 찾아 피약벌에 땀을 흘려 일하며 몸은 매우 힘들었지만, 마음은 너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노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요즘 현대인들의 갖가지 수많은 병은 휴내가 그리워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본다. 바쁜 일상에서 정신적인 여유 없이 살며 갖가지 많은 스트레스로 강박관념

에 시달리게 되니 어찌 병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듯 시간이 허락된다면 자연을 통해서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것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닐까 싶다. 직접 밭을 일구며 휴내를 맡는다면 더욱 좋을 테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산이나 들 그리고 바다나 그 외의 자연을 통해 치유를 얻을 수 있다면 좋을 일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의 자연과의 만남을.

요즘 주말이면 '주말농장'을 찾아 휴내를 맡으며 행복해지는 한국의 친구를 보며 내심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함께 즐겁고 행복하다. 멀리 있는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다. 지난번에는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 하나를 보며 그렇게 고맙고 행복할 수가 없었다. 마른 땅에 옥수수 씨앗을 심었는데 한 주 후 다시 찾아가 보니 옥수수 새싹이 파랗게 오른 것이 아닌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생명의 꿈틀거림은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호흡하며 '공생 공존'하는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한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한담객설閑談客說: 내 제자됨을 알지니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스승의 날이 지났다. 오월은 스승의 가르침을 기리는 달이다. 군사부 일체라 했던가. 중국사람들 뭐든 과장한다만,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동격이라 했던 말엔 고개를 끄덕인다. 스승의 은혜 노래 이절 가사다. 일절 보다 이절이 더 가까워진 나이인게다. 어릴 적엔 목청껏 불렀는데, 머리 큰 고등학생이 되고는 쑥스러워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다. 스승님이 마음을 길러주셨는데도 말이다. 떠나면 잊기도 쉽다.

태산 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며는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간들 언제인들 잊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강소천작사 권길상 곡, 스승의 은혜 이절)

선친은 초등학교교장이셨다. 선친께 제자의 첫 주례 부탁이 있었다. 결혼식 전에 선친은 맹렬히 연습하셨다. 요새 말로 열공인게다. 하객대역으로 어린 나와 어머니가 앞에 앉았다. 듣고 계시던 어머니 모습은 편안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오그라 든다는 표정이었고, 실수하시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이었다. 어머니의 주의 사항이다. '주례사가 길면 하객이 지루하다.' '연설하듯 하지 마시라.' 어머니가 그러시던 말건, 아버지의 표정은 진지했고 심각했으며,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시

는 듯했다. 주례는 아무나 서는 게 아니니 말이다. 존경하는 선배나 은사들에게 부탁하지 않던가.

버스켓 리스트라는 게 있다. 죽기전에 하고픈 일이란. 어원은 그리 유쾌하지 않다. 내게도 몇가지 하고픈 일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거다. 교장이라면 더욱 그럴듯 하다. 그리고 내 선친마냥 제자들 주례를 서는 거다. 하지만 이 일은 물 건너 간듯 하다. 나는 학교선생님도 아니며, 게다가 미국에 살고 있지 않은가. 미국에서야 결혼식 주례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의 독과점이니 말이다. 그렇다고, 아직 어린 후배들에게 결혼할 적에 주례를 하겠다고, 로비에 청탁을 할 수도 없다. 게다가, 한국까지 여행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언감생심焉敢生心 이고, 꿈은 애저녁에 접었다.

나와 같이 일하던 젊은 친구가 있다. 그가 더 공부하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로 했다

. 내게 추천서를 부탁했다.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응했고, 좋은 소식이 왔다. 축하하면서 내가 말했다. '직접 제자는 아닐지라도 기쁘습니다.' 그가 즉각 응답했다. '제가 제자입니다.' 내겐 충격이었고, 그가 내 소원을 풀어 주었다. 내가 훌륭한 제자를 둔 거다. 아쉬운 건(?) 그 '제자' 는 결혼했고, 아이까지 됐다.

주례날 저녁 선친은 찹쌀떡을 답례품으로 가지고 들어 오셨을 게다. 나야, 그것보다 더 반가운 답례품은 없었다. 주례 연습에 하객대역으로 참가한 값진 보상이었고, 내 선친께는 제자가 은사께 드리는 작은 선물이었던 거다. 내 선친이 오히려 감사하셨을까? 당신의 제자인 줄 알아 감사하다고 말이다.

보스톤 한인교회 올해 표어다. 성경의 한구절이고, 뜻이 깊어 기막힌 문장이다. 오월 스승의 날에 어울린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45)



#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www.newyjh.com



###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네일 업계 관련 노동법 Q&A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네일 업계 관련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나가고 많은 분들이 노동법 관련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받은 질문들 중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타임 카드 기계가 없다 어떻게 하나?

반드시 타임 카드 기계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출퇴근 기록부가 있어 직원 본인이 매일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록을 하거나 한 명이 모든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하고 기록 내용이 정확하기만 하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타임 카드 기계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원이 타임카드를 제대로 안 찍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용주 입장에서 그러한 행동에 대한 서면 경고(Warning letter)를 하고 타임카드를 제대로 찍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그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정해진 회사 절차에 따라 퇴사 조치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절차에 맞게 퇴사를 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회사 내 처벌/퇴사조치 규정에 대한 직원 지침서를 보관하거나 입사 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한 직원의 임금은 어찌해야 하나? 만일 갑

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언제까지 임금을 줘야 하나?

만약 직원이 그만두거나 혹은 고용주가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서류화된 회사 규정이 없고 구두로 휴가에 대해 약속을 했다면 고용주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2주 뒤에 나가겠다고 직원이 알려왔다. 언제까지 임금을 다줘야 하나?

일반적으로 직원이 퇴사를 하기로 하면 고용주는 마지막 일한 날짜가 포함된 임금일에 지불을 완료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매달 15일과 30일에 임금을 지불하고 어떤 직원의 마지막 날이 17일이었다면 30일에는 모든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 고용주는 마지막 임금에 대한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네일업 종사자 중 노동자(manual workers)로 구분이 되는 직종이라면 주급으로 지불해야 하며 늦어도 일을 한 주에서 7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실수를 하는 직원 때문에 자꾸 손해가 발생한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그냥 하고 해도 되나?

뉴욕의 경우 at-will-employment를 채택하고 있는 주로 아무런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고

, 직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계속 피해를 끼치는 직원이라면 해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해고 사유가 나이, 인종, 성별, 결혼여부, 임신여부 등 차별금지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유니폼과 앞치마 등은 무료로 지급해야 하나?

네일살롱 등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유니폼 혹은 앞치마를 입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폼 혹은 앞치마를 의무로 착용하게 하는 경우, 유니폼 혹은 앞치마를 구매하거나 세탁하는 비용을 계산했을 때 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유니폼이나 앞치마의 구매 및 세탁은 고용주가 해야 하며 만약 직원이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네일살롱에서 유니폼이나 앞치마가 아닌 단순한 검은 남방에 검은 치마와 같이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입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연속 근무를 몇 시간 이상 시키면 안되나? 8시간후 15분 휴식인가? 30분 휴식인가?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

뉴욕주법에 따르면, 만약 직원이 11시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는 6시간 근무조로서 2시까지 일을 하

는 경우, 최소 11시와 오후 2시 사이에 30분의 점심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6시간 근무조이지만 6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12시에 일이 마무리된다면 2시까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점심시간을 그 사이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

뉴욕주법에서 점심시간 외에 휴식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네일살롱에서 휴식시간을 주고 그 시간이 20분 혹은 그 미만이라면 일한 것으로 보고 시간 당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업원 채용시 면접을 할 때도 노동법에 위반되는 질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나이, 인종, 임신여부, 국적, 종교, 결혼 여부, 혹은 성적 취향에 관련된 질문들은 차별(discrimination) 대우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나요?" 혹은 "결혼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와 같은 질문은 한국인들 사이에는 흔한 질문이더라도 채용 면접에서는 노동법에 위반되는 질문입니다.

노동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기존칼럼은 www.songlawfirm.com의 소식&자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83 최흥희와 태권도(5)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자신의 설자리를 잃었고, 또한 김운용이 자신이 창립한 ITF의 총재가 될 것이 자명하기에 이민과 함께 ITF를 토론토로 옮긴 것이다. 그리고 그 해 3월 망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11월 30일 태권도를 관장하고 보급하는 '태권도 중앙도장(국기원)' 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수법인체로 준공되었다. 그리고 1973년 5월 25일 17개국에 참가하는 제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이 대회가 바로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으로 스포츠화한 역사적인 시금석이다) 그리고 1973년 5월 28일 김운용에 의해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Federation, WTF)' 이 창립되었다.

캐나다로 망명한 최흥희는 태권도를 전세계로 보급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자신이 창립한 국제태권도연맹을 통하여 1974년에는 몬트리얼(Montreal, Canada)에서 제1회 세계대회를 열면서 세력확장에 고군분투하였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무도이므로 보급의 전위부대가 되어줄 사범들은 한 국사람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이민한 교포들을 대상으로 사범양성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한정된 인적 자원은 그의 계획을 난관에 부딪치게 하였다.119) 그런 와중에서 최흥희는 북한으로부터의 접촉을 받았다. 즉, 해외에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태권도를 보급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던 중 북한으로부터 받은 초청장은 그를 평양으로 향하게 하였고, 그와 더불어 그의 유신체제 비판과 반한운동은 강도가 심해졌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쓴 총탄에 박정희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1961년 '5.16군사정변' 때 부터 시작하여 깊어가기만 했던 그 두사람의 갈등은 화해의 기회도 없이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최흥희가 북한을 방문할 당시 북한에는 물론 태권도가 없었다. 그가 1980년 태권도 보급을 시작할 때까지 북한에는 송도관, 공수도, 레슬링, 권투 등을 혼합해서 만든 '격술' 만이 있었다. 그는 외아들 최중화를 비롯하여 15명의 사범단을 인솔하여 1980년 북한을 방문하였다. 김일성 주석을 만나 북한에 태권도를 보급함은 물론 다른 공산국가의 보급 지원약속도 받아낸다. 그리고 국제태권도연맹(ITF)은 이때 부터 '친북단체'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계태권도연맹(WTF)' 과는 무도뿐만 아니라 대립적인 이

념의 장場에서 조금도 물러설 수 없는 긴 대결이 막을 올렸다. 하지만 이 대결의 내막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최흥희가 캐나다로 이주/망명한 1972년부터 1997년까지 약 25년간 일반 국민들에게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의 존재조차도 알려지지 않았고, 알고 있는 정보기관이나 무도계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언급자체가 금기사항이었다.120) 반면 최흥희의 ITF세력은 무서운 기세로 변장하였다.

119) 당시에는 미국과 캐나다에 한국인 태권도 사범수가 현재처럼 많지 않았기에 자신(ITF)을 따르는 사범들을 많이 확보할 수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망명을 한 후 박정희의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여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태권도 보급과 함께 반한운동을 했기에 조국을 사랑하는 보수성향의 무도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1980년 최흥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전향한 후로는 과거 군부에서 연결된 인맥으로 '충성'을 하는 몇몇 사범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그를 떠났다.

120) 1997년 시사주간지 발행인 고 손충무가 '인사이드 월드'에 내용을 기사화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휴람 제휴 이벤트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대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종류	남자	여자
휴람기본	<del>62만원</del> → 47만원	<del>78만원</del> → 59만원
휴람청일	<del>120만원</del> → 91만원	<del>138만원</del> → 103만원
휴람VVIP	<del>304만원</del> → 228만원	<del>320만원</del> → 240만원

[검진시간 안내]  
평일 : 오전 8시 ~ 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 ~ 2시

휴람 제휴 이벤트

##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동포  
**‘특별이벤트’**

모발이식 5만원씩 할인  
수술후 세정제 3만5천원 Free  
생착률을 도와주는 EGF가 3만원 Free

절개	비용	비절개	비용	절개+비절개	비용
4000모	290만원	2000모	400만원	7000모	790만원
5000모	390만원	2500모	450만원	8000모	990만원
		3000모	500만원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150만원~~ → **120만원**

무삭제 라미네이트  
~~80만원~~ → **60만원**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대표원장 이두형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동부병원 치과 과장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외래교수
- 대한구강학 안전임플란트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보존학회 정회원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 에디그 에스테틱 특별할인

Professional Skin Care System

에디그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럭셔리인테리어와 고급관리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동안 미스 스킨 케어 마사지

이태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스페셜 힐링 케어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del>19만원</del> → <b>15만원</b>	<del>20만원</del> → <b>16만원</b>	<del>25만원</del> → <b>20만원</b>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다. 에디그만의 특별한 관리로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추보세요
<del>32만원</del> → <b>26만원</b>	<del>38만원</del> → <b>30만원</b>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정(正)

“정의(正義)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 마태복음 5:10



正義는 不義(불의)를 밀어내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正義를 不義와 비교해서는 안 될만큼 사랑하고 집착하면서도 살고 난 결과는 不義로 기울어진다.

해서 정자를 보면 불의의 길로 못 가게 브레이크(brake = 止)가 박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公生涯)를 시작하면서 군중을 상대한 산상설교에서 正義를 두 번이나 강조하신다.

‘正義의 핍박’에 앞서 “正義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 이요;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 마태복음 5:6

5월 29일 한국 국회는 문제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해소를 위한 특위구성 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측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대통령령(숙),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은 국회가 필요할 경우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처리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령의 경우 농해 수위와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 개정안을 마련, 이를 6월 임시회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시행일과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공적연금 강화합의문을 경시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데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가 공적연금 강화사회적 논의에서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약해야 한다는 것.

이의 합의결정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이종걸 새정치

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 합의결정되었다.

27일 미국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의하면 지난해 7월 초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에서 러시아해군잠수함과 북한 해군경비함, 어선이 충돌해 19명이 숨졌으나 북한 당국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

RFA방송은 북수의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7월 초 낙지(북한에선 오징어를 뜻함) 잡이에 나섰던 ‘청진수산협동조합’ 어선 여러 척과 해상감시업무를 수행하던 북한해군경비함 679호 등이 갑자기 솟아오른 러시아 잠수함에 부딪혀 침몰했다”는 것.

RFA에 의하면 사고 당시 경비함에는 해군장병 32명, 어선에는 어민 14명이 타고 있었다는 것.

이들은 오후 11시경에 낙지잡이 해역에 도착, 식사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떠오른 러시아 잠수함에 변을 당한 것.

러시아 잠수함은 작전 중 폐기물에 걸려 급히 떠오르다 사고를 냈다는 것.

이 사고로 해군장병 11명과 어민 8명 등 19명이 사망했으며 생존자들은 러시아 잠수함에 구조됐다.

사망한 장병들은 평양에 있는 영웅전사 묘역에 안장됐으나 사고 당시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었던 북한 당국에 의해 숨겨졌다. 살아남은 장병들은 다른 부대로 분산 배치됐으며 숨진 어민의 가족들도 모두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19명의 사망 소식은 은폐될 수 있었다는 것.

가는 곳마다 물세례를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광주 5.18 전야제에서도 고(故) 노무현 대통령 6주기를 맞은 봉하마을에서도 물세례로 뒤집어 썼는데 날이 갈수록 김무성 대표 지지도는 계속 오름세다.

봉하마을에서 물세례를 맞고도 그저 허허

실실 여유를 보인 김무성 대표와는 달리 옆자리에 긴장스럽게 앉은 문재인 새정치연합대표가 김무성을 더 여유롭게 장식했다. 상대적으로 정을 알았더라면.

정정: 方直不曲방직불곡, ‘바를 정.’

이 글자를 보면 “二(두 이) 사이에 止(지): 停也정야, 그칠 지” 자가 합성돼 있으며 “거짓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을 품고 있다. 왜 그가 止를 품고 “바를 정정”을 세우는지는 성경이 명백히 밝힌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증(ID)이어서다. 인간이 하나님의 금지된 선악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불가피한 운명.

내(하나님)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Have you eaten from the tree that I commanded you not to eat from?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The man(Adam) said, “The woman you put here with me – she gave me some fruit from the tree, and I ate it.”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덴 Eden)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 창세기 2:16, 17

바로 이 선악과의 열매, 먹으면 죽는다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

이것을, 죽음을 바로 잡으려 예수님이 오셨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열매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 그것을 막게된 것도 하나님이 소개하신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탓을 돌렸다. 현대 이 문제의 죽음을 정

으로 바로잡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 요한복음 11:25, 26

이 간단명료한 진리를, 인간의 실수로 불러온 죽음을 영생(永生)으로 되돌려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을 믿지 않는 우매한 정치인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언제까지 “正 - 不(부)正” 사이를 헤멜 것인가?

고 성완중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 수수로 양심을 팔만큼 타락하진 않았다”고 주장하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3천 만원을 받았다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돈을 줬다는 고 성완중 회장이 교회장로이면서 자살했으니 그의 말도 신빙성을 잃은 셈.

“하나님의 (正)義를 모르고 자기 (正)義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正)義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Since they did not know the righteousness that comes from God and sought to establish their own, they did not submit to God’s righteousness.” - 로마서 10:3

예수님 안에서 금지된 탈(脫) 正義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正義를 그려내는 것은 “예수님(羊)과 내(我)가 연결된 義가 正義가 아니라 不義(불의)로 탈바꿈 하게 되는 타락을 막아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二) 안에 장치된 브레이크(止)를 꼭 밟아서, 올해가羊띠 해니까 止를 正直(정직)하게 밟아야 -!



**Summer 2015 Program  
Sign Up Now!**

Essay Writing Workshops: Middle and High School	
Make essay writing easier for you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Enroll your student in a ReadWrite essay workshop where students study the elements of a quality essay and prepare, write and revise up to two essays in class.	Monday to Friday 9:00 to 11:00 AM
<b>\$150 per week/ \$125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b>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Summer Days Program: Grades 3 to 8	
Our Summer Days program offers kids summer fun while they continue to build their reading, critical thinking and writing skills. In between outdoor activities and creative projects, kids read, discuss readings and write related essays.	Monday to Friday 9:00 to 3:00 PM <i>Before care and extended day options available.</i>
<b>\$270 per week/ \$250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b>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Weekly Year-Round Classes: First Grade through High School	
Students practice essay writing, and critical thinking and reading skills in a small class. Students improve writing skills by drafting, revising and polishing persuasive essays, opinion pieces, narratives and more. Our curriculum and class size are structured for open enrollment, and ensure that each student's needs are met. Classes are held year-round.	<b>Classes: (Grades 1-12)</b> • Reading/Writing Workshop (1-4) • Literary Analysis (5 to 8) • Expository Analysis (5 to 10) • Intensive Essay Writing (High school) • Tutoring: SAT, ACT, ISEE, SSAT
<b>Class schedules can be found at:</b> <a href="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a>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mailto:info@BostonReadWrite.com) 이나 전화 857-404-0170 으로 연락바랍니다. 무료 Trial 클래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세요!

앤티비( *enjoy & TV* )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 Welcome, *TBO*

##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 원하는 한국 방송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끊김없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 시니어 특별 할인!

# 무제한 시청 월 \$ 29.99

5월 31일까지(2년 약정시)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서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84) 실수하는 은퇴투자

은퇴하면서 은퇴자금을 너무 많이 모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실수하는 은퇴투자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 \*허락된 은퇴투자 한도액

은퇴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2015년 직장인들의 401(k)은 \$18,000까지 세금공제가 됩니다. 한 예로 직장인의 봉급이 \$100,000이고 \$18,000을 투자하면 그해 수입 세금은 \$82,000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투자하지 않고 받는 \$18,000은 세금으로 30%를 낸다면 \$12,600뿐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혜택으로 투자하는 돈이 복리로 증가하면 은퇴할 때 커다란 목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0살이 넘는 사람은 \$6,000을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가정주부의 은퇴투자

부부 중 한 사람이 수입이 있으면 일하지

않는 배우자도 세금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15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5,500(50살 이상은 \$6,500)입니다.

정부가 은퇴자금 투자에 한도액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마디로 그만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우리는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벌과금

은퇴자금을 59.5세 전에 찾으면 벌금이 10% 부과됩니다. 세금도 내야 합니다. 은퇴자금은 은퇴할 때 필요한 돈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시 사용할 돈은 항상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401(k)와 같은 은퇴자금에서 필요한 돈을 빌려(loan)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bfko-rean.com](http://www.bfko-rean.com)에 있습니다.

### \*상속수혜자(beneficiary) 설정

은퇴자금에 상속수혜자를 설정하면 상속

법원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에게 바로 상속됩니다. 이 말은 금융자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트러스트(trust)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이해한 후 상황에 적합한 트러스트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70.5살이 되면 은퇴자산에서 정해진 금액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정해진 금액을 찾지 않으면 벌금이 50%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야 하는 \$10,000을 찾지 않으면 벌금이 무려 \$5,000입니다. 여기에 세금도 \$10,000에 대해서 내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은퇴자산 약 70%가 세금과 벌금으로 정부에 내야 합니다.

### \*트러스트와 상속수혜자

어떠한 이유로 트러스트를 형성했다고 합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금융자산 수혜자를 트러스트로 설정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최대 효과

생활하고 남은 은퇴자금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상속합니다. 상속하는 돈이 세금은 최소한 하고 투자 효과는 최대한 하는 방법을 스트레치 은퇴자산(stretch provision)이라 말합니다.

아들이나 딸이 상속을 받을 때 나이가 50이라 가정합시다. 평균 사람수명 나이 100으로 간주하여 50년 동안 상속자산을 나눠서 세금을 내므로 세금 부담이 최소화 됩니다. 또한,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50년이 되므로 장기투자자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으며 손녀손녀에게도 커다란 선물이 됩니다.

직장인들은 적은 돈으로 필요한 은퇴자금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인 은퇴계좌(IRA)에 \$5,500씩 10% 이자로 30년을 투자하면 은퇴할 때 거의 \$100만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mailto:clarapaik@newstarrealty.com)

## 수요 비해 주택 매물량 부족

### [주택 가격 상승]

주택가격 상승 랠리가 본격화됐다. 주택가격은 연초 거래 부진으로 상승 동력이 꺼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본격적인 주택거래 시즌과 함께 지난해 상승세를 이어가며 가격 둔화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주택가격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째 상승 랠리 중이다. 2012년 약 8%, 2013년 약 12%, 지난해 약 5%로 꾸준한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무난히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승폭은 연간 약 4%대로 낮아지고 내후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정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 매물 부족현상 가격 다시 밀어 올려

지난 2월 주택가격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높은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S&P 케이스 실러 가격지수에 따르면 2월 20대 도시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상승했다.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로 대출비용이 낮은 점과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난 점 등이 호재로 작용, 주택시장에 주택구입 수요가 대거 유입된 것이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다.

2월 주택가격 상승폭은 연간 대비로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폭이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블룸버그 통신이 경제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주택가격 상승폭은 약 4.7%로 예측됐다.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매물부족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을 내놓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살아난 주택구입 수요와 함께 활발한 주택 거래를 이끌 전망이다.

라이언 왕 HSBC 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살아난 주택구입 수요에 비해 주택 매물량이 부족한 점이 현재 주택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며 “올

해 동안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전망했다.

### ■ 가격 상승 전국적 현상

2월 중 주택가격 상승세는 20대 도시에서 모두 나타났다. 특히 덴버와 달라스의 주택가격은 주택시장 침체 전 최고 수준을 돌파하는 등 일부 도시에서 과열양상이 우려된다.

20대 도시 중 덴버의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치솟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샌프란시스코도 지난해보다 주택가격이 약 9.8%로 상승,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20대 도시 중 17개 도시에서 연간대비 주택가격 상승폭은 전달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샌디에고, 라스베이거스, 포틀랜드 등 3개 도시에서만 주택가격이 연간 대비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전달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월 중 20대 도시의 주택가격은 전달 대비 모두 상승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주택가격이 1월보다 약 3.3% 올랐고 클리블랜드는 약 0.4% 상승에 그쳤다. 데이빗 블리처 S&P 지수위원회 회장은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인플레이션율과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침체 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을 완전한 회복으로 본다면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분석했다.

### ■ 매물수급 불균형 심각

주택가격 급등요인은 주택매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다. 낮은 금리와 모기지 대출장벽 완화로 주택구입 수요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매물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 중이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 3월 매물 판매기간은 평균 약 52일로 두 달도 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물이 시장에 나온 뒤 두 달 안에 팔릴 정도로 판매속도가 빨라졌다.

3월 중 시장에 나온 매물은 약 20만채로 최근 판매속도를 감안할 경우 매물 대기기간은 약 4.6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매물 대기기간이 약 6~7개월일 때 수요와 공급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상태로 주택가격이 안정이 이뤄진다. 현재 매물 대기기간 4.6개월은 매물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 ■ 이자율 오를 경우 수요 급감 불가피

주택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모기지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가격 급등으로 주택구입 여건이 악화돼 일부 주택 구입자들은 주택구입을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만약 모기지 금리마저 상승할 경우 주택구입 수요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 확실하고 주택가격 하락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국영 모기지 보증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최근 30년 만기 고정금리(4월23일 기준)는 약 3.65%로 매우 낮다. 30년 고정금리는 지난해 한때 4.53%까지 치솟은 바 있는데 당시 주택구입 수요급감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주택구입을 포기한 바이어들이 올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구입에 다시 나서고 있다.

### ■ 주택소유율 20년래 최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 소유율 하락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 속도를 크게 앞지르면서 주로 저소득층과 첫 주택 구

입자의 주택 구입률이 낮아진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임금 상승률 전년 대비 약 2.1%로 주택가격 상승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 구입인이 가중되면서 주택 소유율은 20여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연방 센서스국의 지난달 28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 소유율은 약 63.7%로 1993년 이후 가장 낮아졌다. 더딘 임금상승 속도와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거듭되면서 주택 소유율 상승의 핵심요인 첫 주택 구입자들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NAR에 따르면 지난해 첫 주택구입자 비율은 30년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임금상승 없이는 주택시장 회복이 장기간 유지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mailto: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http://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http://newstarrealty.com)

# 보스톤한인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출발을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보스톤 한인회의 Slogan(슬로건)을 정해 주세요!



## 보스톤한인회 Slogan 공모전

슬로건(slogan)은 대중이 집단 행동을 할 때 자신들의 요구와 행동을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해 쓰는 구호나 좌우명(일종의 모토)이다.

**공모기간**

2015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1달간)

**공모대상**

한인사회 구성원 누구나 (자격제한 없음)

**공모방법**

이름, 주소, 연락처(셀폰), 이메일, 성별, 연령층을 기재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한인회의 슬로건을 적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연령층은 (청소년, 대학생, 일반성인, 시니어)로 구분하여 기재  
\* 시니어는 만 65세 이상

**상 품**

1등 (1명) : 갤럭시 노트 최신형  
2등 (3명) : \$100상당의 상품권  
3등 (10명) : \$20상당의 상품권



**접수처**

우편접수 : 보스톤한인회 (13 Campbell St. Woburn, MA 01801)  
이메일접수 : haninhoebo@gmail.com

발표는 2015년 6월 10일 (수요일),  
한인회보와 한인회 홈페이지(www.bostonks.com)에 공지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턴코리아 컬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언론의 자유 (1) 뉴욕타임즈대 설리반 판결

이삼일 전 뉴욕타임즈가 내보낸 “Venerable Korean American Group in New York Descends Into Chaos”라는 제하의 기사가 화제다. 요약하자면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놓고 벌어진 투표 절차상의 잡음 때문에 두 명의 자칭 한인회장이 등장한 끝에, 두 번의 한인회 취임식에 경찰, 법원까지 등장하는, 뭐랄까 독해가 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기사였다. 한인 이민자인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당연히 한인 이민자 그룹에 대한 또 한 번의 “낙인” 효과를 우려한다. 몇 주전 처음 뉴욕 타임즈가 (대부분 한국인 소유인) 뉴욕 네일 업계의 타인종에 대한 차별과 임금 및 노동착취 현실을 고발한 기사 (The High Price of Pretty Nail: 반짝이는 매니큐어에 숨겨진 네일미용사들의 어두운 삶)가 나오자, 한인 네일업계는 이것이 한인에 대한 비하이며 인종 차별이라고 대응했다.

그리고 마치 시리즈로 준비된 2탄처럼, 24시간 주유소와 식당의 임금착취 문제를 다룬 고발 기사(When It Comes to Wage Abuses, It's Not Just the Nail Salons)가 등장했을 때, “일레”로서 나왔던 “한국 식당” 등의 사례 덕에 “이러다가 뉴욕타임즈 때문에 한인 자영업은 다 망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폭풍 검색 중 우연히 알아낸 사실: 뉴욕 타임즈 기사가 나온 직후,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모 한인 식당에 모여서 한인들이 힘

을 모아 사태를 해결하자고 결의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며칠 뒤 나온 두 번째 기사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노동자에게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한 후,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도된 그 “한국 식당”이었는데!)

‘우리’ 한인들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사태는 혹시라도 ‘우리끼리’ 니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해도 입다물게 되었던 현실이 아니었을까. 그나마 그런 기사들이 없었다면, 일부이든 대부분이든 ‘있어서는 안되지만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우리들은 아예 무지하거나 무관심했었을 지도 모른다.

솔직히 이런 심정은 체불 임금으로 속앓이 해본 유경험자로서 (이건 내가 ‘당’ 해봐서 아는데...) 그 기사로 억울하실 사장님들보다는 그 반대편의 이야기에 훨씬 더 공감이 갔던 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뉴욕타임즈의 언론으로서의 본령은 ‘사실’을 보도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일터. 그것이 헌법 초안에 명시되지 않은 개인과 각 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권리장전 (Bill of Rights 혹은 수정헌법 1~10조) 중 제1조가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일 것이다.

그리하여, 뉴욕타임즈의 잇따른 보도로 한

인사회가 뒤숭숭한 오늘 다시 돌아보고 싶은 미국사의 장면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이다.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 판결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흑인 민권운동의 열기가 달아오르던 1960년 3월 29일 뉴욕타임즈에 “Heed Their Rising Voices”라는 제목의 전면광고가 실렸다-기사가 아니라 의견광고다. 이 광고는 흑인 민권 운동가들이 \$4800에 의뢰한 것으로서,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남부에서의 시민운동을 지원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광고가 대법원까지 송사에 휘말리게 된 배경은 광고가 나오기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 2월 25일, 35명의 앨라배마 스테이트 칼리지 학생들이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지하의 스낵바에서 음식을 주문했다. 당시 남부는 식당 조차도 백인 전용과 유색인종용으로 분리되어 있던 시절이었기에, 이 학생들은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한 채로 전원 연행되었다.

게다가 바로 다음 날, 전직 교육위원장 출신 주지사 존 패터슨은 이 학생들을 “공립대학”으로부터 퇴학시킬 것을 명령하였다. 흑인 대학이었던 앨라배마 스테이트 칼리지의 학생 800여명은 이 결정에 분노하여 가두행진을 벌이자, Ku Klux Klan 멤버들이 몽둥이로 이 흑인 학생들을 가격했다. 그런데

KKK 회원들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바로 그 장면이 몽고메리 경찰은 그냥 병풍처럼 서 있었다.

그리하여 약 한달 후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Heed Their Rising” 광고 중 일부는 몽고메리 경찰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또한 한편 경찰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자택에 대한 폭탄 테러에도 연루되어 있고 더 나아가 흑인들의 전반적인 삶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뉴욕타임즈의 광고를 접한 몽고메리 경찰서장 L.B. Sullivan은, 자신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마치 본인이 경찰력을 남용한 것처럼 묘사되었다며 기사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뉴욕타임즈가 이를 거부하자 설리반은 명예 훼손을 이유로 5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앨라배마 주 대법원까지 연거푸 패소하여 거액을 배상할 뻔했던 뉴욕타임즈를 구원한 것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 1조는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완벽한 정확성을 요구하는 기존의 명예 훼손에 대한 법칙은 언론에 대해 자기검열을 강요(하며,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뉴욕타임즈의 손을 들어준다.

(다음주에 계속)

###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 2015 미국 명문 대학 정규지원 분석: 콜롬비아 대학교

정준기 원장 (보스턴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최근 한국인들의 콜롬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에 대한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그 이유는 장소,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맥을 들 수 있다. 뉴욕이라는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생활해보고 싶은 장소이고 동시에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인턴십 경험을 해보고 싶은 곳이다. 콜롬비아만의 독특한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주는 장점과 이를 적절히 잘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대학으로 유명하다.

올해 총 36,250명이 지원하여 2,228명이 입학허가 되었다. 이는 콜롬비아 대학 역사상 가장 경쟁이 치열했고 지원자 신 기록을 세웠다. 올해 신입생들은 우수한 학업 성적, 끊임 없는 학업에 대한 호기심, 주변 공동체에의 긍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특히 동부 명문 고등학교 출신들 중 우수한 성적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입학이 거절된 가장 진학이 힘들고 예측하기 어려운 대학이었다.

올해에는 미국 50개 주와 세계 76개 국가에서 입학 허가된 학생들을 배출하였다. 콜롬비아가 최근 엔지니어링 전공 여학생들에 대한 입학 기회를 확대 하면서 많은 한국 여학생들이 입학만을 목적으로 엔지니어링 전공으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생겨나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학교다. 콜롬비아에 엔지니어링 전공으로 지원하여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 후에 콜롬비아 대학 내 다른 전공으로 바꿀 수 없기에 엔지니어링 전공 선택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First Generation, Legacy, Home Schooling, Heartstrings(결손가정 등), Diversity 등의 요소를 입학에 많이 고려하고 있는 대학이다. 공식적으로는 재정보조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정규 지원 시 재정보조 신청은 입학 결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을 이미 몇 년간의 입학 결과가 증명해 주고 있다.

콜롬비아 입학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점들은 다른 IVY 대학들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고등학교에서 특히 준비되어야 할 사항은 4년간 짜임새있는 과목들을 일정하게 수강하고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깊이있는 경험을 해야 한다. 동시에 뉴욕이라는 도시에 주어진 리소스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조그만 학교 공동체

에 리더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또한 콜롬비아가 첫 번째 선택학교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조기(Early Decision) 지원을 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재정보조 신청을 자제하면 입학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대학이다.



www.pospay24.com



#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네일살롱, 새 장비들, 매매가격 \$6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뉴햄프셔(보스톤에서 1시간 거리)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고급동네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45,000 매매가격 \$40,000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매매가격 \$50,000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랍 스토어 연매상 \$90,000 매매가격 \$30,000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매매가격 \$99,000 32년만에 은퇴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 2015 여름방학 프로그램

### I .SAT I (Old, New)

- 기간: 6.22~8.21  
(3주단위,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프로그램(9:00~5:30)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home work, 단어 test, 매일 test결과보고서 발송)
  - 다양한 선택 가능성

### II. College App Essay

- 기간: 7.13~8.21  
(2주단위,3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강사:  
15년 이상의 강의경력  
에세이및 교정 전문가
- 수업내용
  - Common App 에세이 주제
  - 자신에 가장 적합한 주제선정과 표현법
  - 완성도를 높이는 교정법

### III.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7.13~8.21  
(3주단위,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력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